

研究報告 192
1989. 12

首都圈 주변지역의
農業構造變化에 관한 調查研究

李永錫(責任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연구보고 192

수도권 주변지역의 농업구조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요 약

1. 사례지역에서의 농업과 농가의 변화는 1989년 현재, ① 도시화 탈농업지역, ② 부·겸업농화 지역(도시화 탈농업 직행지역), ③ 전업농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2. 도시화 탈농업지역은 인천시 북구 부평 4동과 안양시 평촌동임. 부평 4동은 전형적인 답작지역으로부터 1968년을 전후한 부평공단 조성사업 → 1974년의 경인천철 개통 → 1985년 및 '87년의 2차에 걸친 토지수용을 거쳐 부평공단의 배후 및 인천시 북구의 도심지로 완전히 탈바꿈 했음.

3. 안양시 평촌동은 1990년부터 준직할 성격의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89년의 수확을 끝으로 농사를 마감하게 됨. 평촌동의 택지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일기 시작한 '70년대 후반부터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85/'86년에는 투기성향을 띠기도 했고, 이때 이미 자기농토에서 농사를 짓는 원주농가들의 비중은 1/3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부재지주의 출입경작, 농촌출신 도시영세가구들에 의한 대리경작, 임차경작 등 매우 다양한 과도기적 형태가 뒤섞였으나, 이제는 불과 10여년만에 전형적인 답작마을에서 신도시로 바뀌게 된 셈임.

4. 도시화 탈농업 또는 부·겸업농화가 진행중인 지역은 성남시 북정

동, 고양군 원당읍의 원흥1 리와 식사2 리로서, 성남시 북정동은 1972년의 시승격을 계기로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989년 현재 전체 토지의 80% 가량이 관외인의 소유가 되어 있고, 올림픽 시설들과 가깝고, '88올림픽 경기의 일부를 치루기 위해서 '86/'87년에 추가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음. 이로써 1970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답작마을이었던 북정동은 집단화 되어있는 일부 절대농지(논)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변했고, 3번 국도 주변농지에는 10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집중되어 화훼단지화 했음.

5. 고양군 원당읍 원흥1 리는 1984년까지 외형과 내용면에서 답작위주의 평범한 농촌마을이었으나, 지하철 3호선의 개통('85년)과 함께 구파발 일대의 화훼농가들이 이주해 오으로써 답작+화훼의 지역복합 성격의 마을로 변하고 있으나, 일산 신도시의 건설과 남북간간의 긴장완화 등이 계속되면 앞으로 성남시 북정동과 비슷한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을 볼 것으로 생각됨.

6. 원당읍 식사2 리는 외형상 답작+전작(자가소비)의 농촌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나, 인접한 식사5리에 오래전부터 있어온 「고운농장(나환자 재활농장)」이 '82년부터 점차 공업단지화 하여, 1989년 현재 4백여 업체가 3천여명의 현지인을 고용함으로써, 식사2리 전체 83농가중 72농가가 농외취업을 통한 부·겸업농가로 바뀌었고, 답작 기계화도 높은 수준에 달하게 됨.

7. 전업농지역은 인천시 북구 방축1동과 남양주군 화도면 차산2리로서, 방축1동은 1989년 김포군 계양면 방축1리에서 인천시에 편입되었으나, 마을의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으로, '70년대 중반에 시설채소(토마토)와 절소가 도입되었을뿐, 주거목적의 도시영세가구들이 꾸준히 유입되어, 비록 아직까지는 전업농이라고 볼 수 있으나, 셋방, 전세수입과 자녀들의 급료수입이 증가하고, 현경영주의 고령화로 농사는 점차 부업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임.

8. 화도면 차산 2리는 천마산 지맥의 한 계곡마을로서, 1965년에 낙농의 뜻을 가진 4개 농가가 적소 20두와 함께 이 마을로 이주해 옴으로써 낙농이 꾸준히 확산되어, 일부 낙농전문농가, 일부 낙농+경종의 복합경영농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답작 기계화도 100%에 이르고 있음.

9. 이러한 변화는 국토개발 및 도시화 → 농지의 전용과 토지소유의 재편성 → 탈농 및 농가의 유출과 새로운 계층의 유입 등의 지역주민의 재편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발요인들을 포함한 농업·농가 외적인 요인(외부적 요인)과 농가로서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농업의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수입자유화, 저농산물가격시대의 도래, 사회적 소외감, 상대적 열등감 등) → 자녀세대의 비농업분야 진출 도모 → 영농후계자의 단절 → 과도적 부·겸업농화 → 세대교체 및 농사의 마감(탈농가화)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유발요인을 포함한 농업·농가의 내적요인(내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10. 특히 현재의 경영주들은 선대로부터의 농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농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농사경험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의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임.

11. 그러나 국토의 개발에 대한 수요와 같은 외부적 요인은 하나의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자체를 문제점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개발은 그 주변이나 국가적 필요뿐 아니라, 해당지역 스스로의 요구와 편의가 서로 조화를 이루워야 한다는 점을 소홀하게 다루어온 점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재의 토지거래가 법규나 제도에 앞서서 사실상의 무제한적인 자유경쟁에 맞겨짐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큰 장애를 받고 있는 것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임.

12. 물론 토지소유욕이나 농업의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정면에

IV

서 부인할 수는 없으나,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의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13. 예를 들면, 각각의 영세농지들을 출자금으로 한 주식회사 형태의 공동조직이나 위탁영농회사의 육성과 같은 방안이나, 또는 이미 상당히 집단화되어 있으나 기반이 극히 취약한 화훼농가들을 공단조성과 동일한 차원에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 상품화 작업장, 검사장 상하역장 등을 갖춘 단지화 등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14. 물론 이상의 결과가 사례지역에서의 특수한 현상이나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와 동일한 여건과 환경, 그리고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사례지역들이 경험한 부작용들을 되풀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음.

머 리 말

본격적인 經濟開發政策을 추진하기 시작한 '60年代 후반부터 꾸준히 進行되어온 產業社會化가 먼저 都市地域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都市近郊地域은 農村이었었다는 과거의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都市化 추세는 全國土의 均衡開發이라는 차원에서 大都市는 물론 中小都市에서도 꾸준히 加速化될 것이라는 見解가 지배적이며, 首都圈地域들은 이미 거의가 都市化 되었거나, 都市化가 進行중에 있다. 이는 都市近郊地域에 있는 農村마을들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며, 農家들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長期的인 構想이 막연한 상태에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地域에서의 農業과 農家の 變化를 현재까지의 추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바람직한 方向으로 誘導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論議나 研究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靑壯年層의 農外就業으로 老人과 婦女子들이 農事를 감당해야 하는 地域의 農家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中長期的, 政策的 對應方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研究는 이들 地域의 變化에 대한 事例調査를 통해, 지금까지의 變化方向과 程度, 그 구체적인 內容과 要因 등을 규명함으로써 國土 및 地域開發政策의 樹立에 대한 資料를 제시코자 했다. 本研究가 首都圈 일부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都市膨脹이나 國土開發에 있어서 農業과 農家の 變化가 發展的인 方向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한 研究와 政策開發

ii

에 基礎資料의 하나로 利用되어 지기를 바란다.

1989.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目 次

第 1 章 序 論	
1 問題의 提起	1
2 研究目的	2
3 研究範圍 및 方法	2
第 2 章 都市近郊農業에 관한 理論的 考察	
1. 農業生産立地論	5
2. 都市近郊地域의 農業과 都市近郊型 農業	8
第 3 章 事例地域 農業構造의 變化實態와 그 要因	
1. 都市近郊地域의 農業變化 類型分類	10
2. 專業農化 地域	17
3. 副・兼業農化 地域	31
4. 脫農業化 地域	59
5. 事例地域의 農業構造 變化上的 特徵	74
第 4 章 首都圈 주변지역의 農業構造 變化上的 當面問題點과 그 對策	
1. 問題認識의 基本的 틀	81
2. 土地所有의 再編成과 農家의 移動	83
3. 對應方案	86
第 5 章 要約 및 結論	89

表 目 次

第 1 章

表 1 - 1	事例調査地域	4
---------	--------------	---

第 3 章

表 3 - 1	우리나라 農村地域의 類型區分에 관한 主要研究	12
表 3 - 2	우리나라 農村地域의 類型區分 事例	13
表 3 - 3	日本의 農村地域類型과 農村空間類型的 區分 事例	14
表 3 - 4	首都圈 주변지역의 農業・農家の 變化類型과 變化 過程	16
表 3 - 5	車山 2 里의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20
表 3 - 6	防築 1 洞의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27
表 3 - 7	福井洞의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36
表 3 - 8	元興 1 里의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44
表 3 - 9	畚作農家 및 논면적의 構成(坪村洞, '85. 12)	60
表 3 - 10	坪村洞의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64
表 3 - 11	事例地域의 農業・農家の 變化要因과 過程	74
表 3 - 12	事例地域의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및 類型	76

圖 目 次

第 1 章

圖 1 - 1 事例調查地域 位置圖	3
--------------------------	---

第 2 章

圖 2 - 1 Thünen 의 農業生產圖	6
圖 2 - 2 地價와 土地利用의 關係	7
圖 2 - 3 地價와 農地利用의 關係	7

第 3 章

圖 3 - 1 農業地域의 長期的인 農業・農家의 變化過程	11
圖 3 - 2 都市近郊地域 農業・農家의 變化方向	11

빈 면

第 1 章

序 論

1. 問題의 提起

1960 年代初부터 本格的인 經濟開發政策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꾸준한 産業社會化가 주로 都市를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都市近郊, 특히 大都市 주변지역들은 과거의 農耕中心의 農村마을로서의 흔적마저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급격한 變化를 경험해 오고 있다. 人口의 都市集中, 都市圈의 팽창, 都市機能의 확충 및 보완 등으로 인해서 都市近郊地域들은 地域內의 農家들이 脫農化, 副·兼業農化 또는 專門農化 등을 추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地價上昇을 기대한 財力 있는 사람들의 農地買入, 都市開發 등으로 인한 都市農家들의 逐出 등에 따른 農家들의 轉入이나 轉出에 의해서 地域住民들이 再編成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都市化의 진행이 全國土의 均衡開發과 地方自治制에 의한 地域開發事業의 活性化 등으로 인해서 全國的인 傾向이라는 인식이 매우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都市近郊地域에서의 農業·農家の 變化가 과연 이대로 진행되도록 놔두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

말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都市近郊地域에서의 農業·農家の 변화과정에 대한 調査나 研究, 그리고 이에 대한 分析이나 評價도 별로 試圖된 바가 없다.

따라서 都市近郊地域에서의 農業·農家の 변화가 현재 어느 方向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內容은 무엇인가를 찾아냄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일반적인 변화추세에 맞길 것인지 아니면 어떤 方向으로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試圖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될 수는 없을 것이다.

2. 研究目的

따라서 本研究는 都市近郊地域에 있어서의 農業·農家の 變化實態를 事例調査를 통해서 파악하고, 그 變化要因을 규명함으로써, 都市近郊地域에서의 農業·農家の 發展에 관한 보다 發展의인 研究를 위한 資料를 마련코자 하는데 目的을 두었으며, 아울러 全國的인 國土의 利用 및 開發이나 地域開發政策에 대한 研究와 開發事業計劃의 樹立에 대한 資料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3. 研究範圍 및 方法

本研究는 서울特別市를 제외한 首都圈地域內에서, 현재의 변화모습, 즉 變化水準을 기준으로, 이미 脫農化한 地域(2개소)과 副·兼業農化가 진행중인 地域(3개소), 그리고 專業農地域(2개소)으로 區分하고, 편의상 7개 行政里 및 洞을 有意選定한 다음, 이들 地域에 대한 事例調査를 통해서 그의 變化過程과 實態를 파악하고, 그의 變化要因을 규명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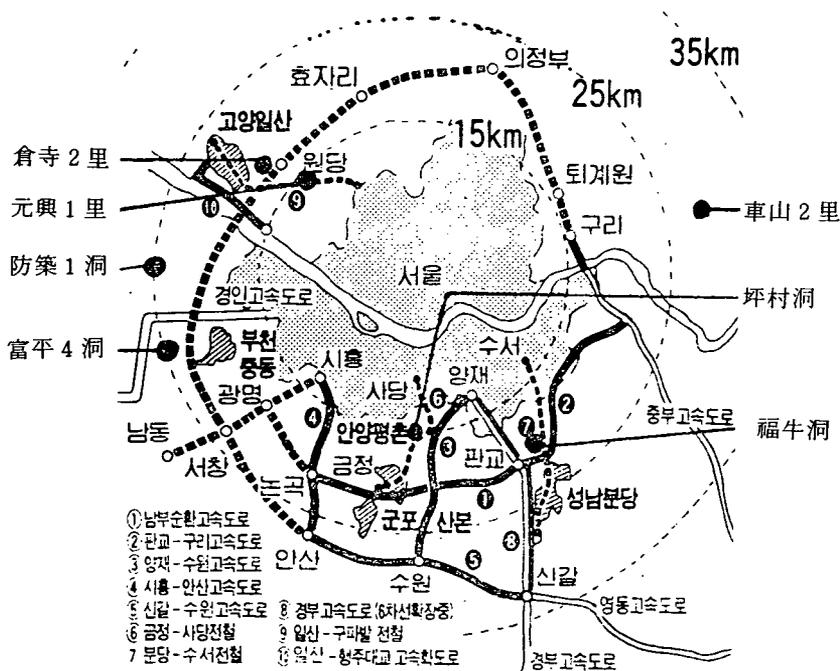
事例調査는 洞長 또는 里長,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았거나, 또는 살

아은 農家, 해당지역의 農村指導 擔當者, 農協 單位組合의 營農部長, 農水産 統計事務所의 해당지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直接面談調査를 실시하는 方法을 택했다.

한편 首都圈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이 지역의 變化가 全國적으로 볼때 가장 빠르고 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별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며, 脫農業地域, 副·兼業農地域, 專業農地域으로 구분한 것은 해당지역의 變化에 대한 農家들의 適應努力이 結果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方向이 위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變化過程이 農事만을 짓던 專業農에서 출발하여, 兼業農, 副業農을 거쳐 脫農業化(또는 都市化)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事例調査地域은 <圖 1-1> 및 <表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

圖 1-1 事例調査地域 位置圖



울시청을 기점으로 12~30 km 반경 이내에 위치한 7개 行政里·洞으로서, 交通距離는 1~2時間에 불과한 지역들이다. 물론 예를 들어 서울의 東部地域 市場圈인 청량리, 南部地域 市場圈인 가락동이나 영등포 등을 기준하면 交通距離가 1시간대 이내인 지역들이다.

表 1-1 事例 調査 地域

區 分	地 域
專 業 農 地 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南楊州郡 和道面 車山 2 里 • 인천直轄市 北區 防築 1 洞
副 · 兼 業 農 地 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城南市 福井洞 • 경기, 高陽郡 元堂邑 元興 1 里 • 경기, 高陽郡 元堂邑 食寺 2 里
脫 農 業 地 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安養市 坪村洞 • 인천直轄市 北區 富平 4 洞

第 2 章

都市近郊農業에 관한 理論的 考察

1. 農業生産立地論

여기에는 都市近郊地域만의 農業生産 立地에 대한 獨立的인 이론보다는 여타 지역과의 比較를 통한 理論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 土地의 肥沃도와 位置(輸送費)를 기준으로 優等地, 次等地, 劣等地로 구분한 Ricardo의 地代理論과, 孤立國을 가정하고 農業經營圈을 區分한 Thünen의 理論, 그리고 地價와 土地用途와의 關係를 설명한 F. S. Chapin의 理論이 그것이다.

Ricardo는 일정한 市場價格下에서 土地의 肥沃도의 差異(生産費)와 市場과의 距離(輸送費)에서 오는 소위 商品供給價格의 差異로 부터 각각 다른 地代가 發生한다고 했다. 따라서 만일 동일한 農産物을 同一한 生産費를 들여서, 모든 지역에서 生産한다고 하더라도, 市場과의 거리에 의한 輸送費 부담의 차이로 인해 市場, 즉 都心地에서 가까운 地域일수록 많은 地代, 즉 많은 所得을 얻게 되어 有利하며, 이에 따라 優等地, 次等地, 劣等地가 구분된다고 했다. 또한 Thünen은 市場과의 거리에 따른 輸送費뿐 아니라, 이에 所要되는 時間, 勞動力 등을 生産

費에 포함시켰으며, <圖 2-1>에서와 같이, 都心에서 가까운 地域에서 부터 都市近郊農業地帶(第1圈), 森林地帶(第2圈), 穀物生産地帶(第3, 4, 5圈), 牧草地帶(第6圈)의 6개 農業圈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Thünen의 理論은 결과적으로 消費市場, 즉 都心으로 부터 멀어질수록 輸送費 등의 부담만큼 收益, 즉 地代가 낮아지므로 都心地에 가까울수록 集約的 農業으로, 都心地와 멀어질수록 農業生産이 粗放化 된다는 것이다.

한편, F. S. Chapin은 土地價格과 土地利用의 관계에서, <圖 2-2>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地價가 높은 곳에서 부터, 商業 및 業務用途 → 住居用途 → 工業用途 → 農業用途의 順으로 利用된다고 했다.

이는 곧 支拂한 地價를 回收하고도, 가능한 한 많은 經濟的 利潤을 얻기 위해서는 土地의 集約的 利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農業生産 內部에 있어서도 <圖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心과의 距離가 가까운 곳에서 부터 土地集約的 作目的 生産에 主力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理論들을 종합해 보면, 肥沃度나 位置, 消費市場 또는 都市와

圖 2 - 1 Thünen의 農業生産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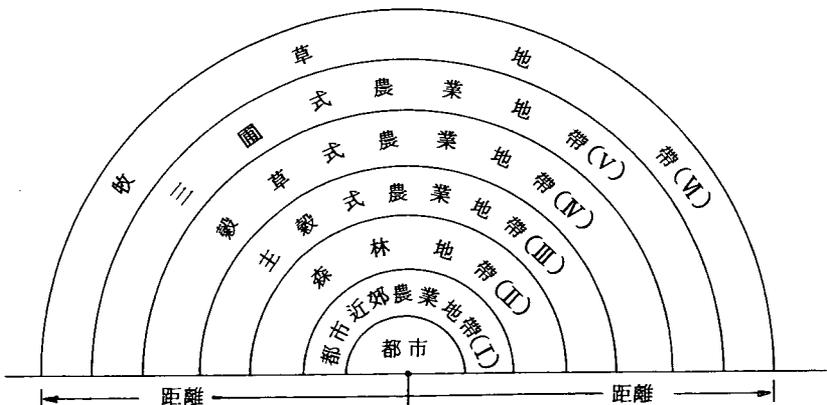


圖 2 - 2 地價와 土地利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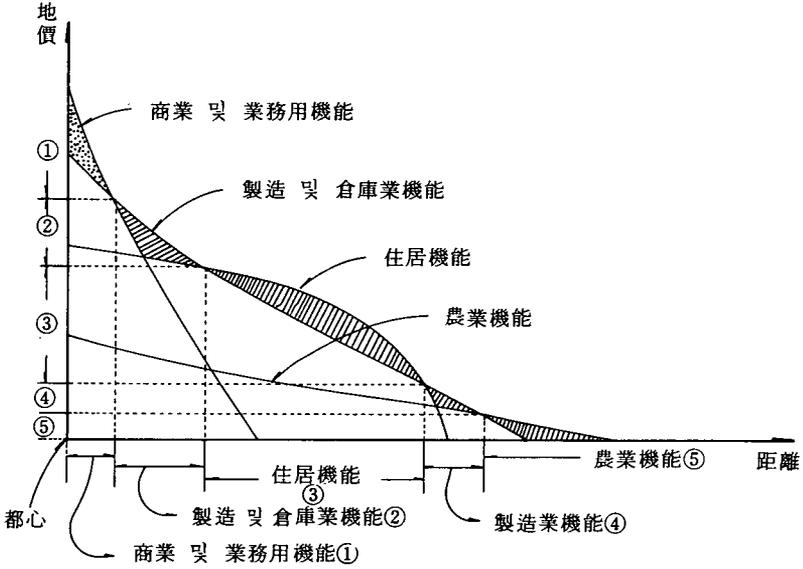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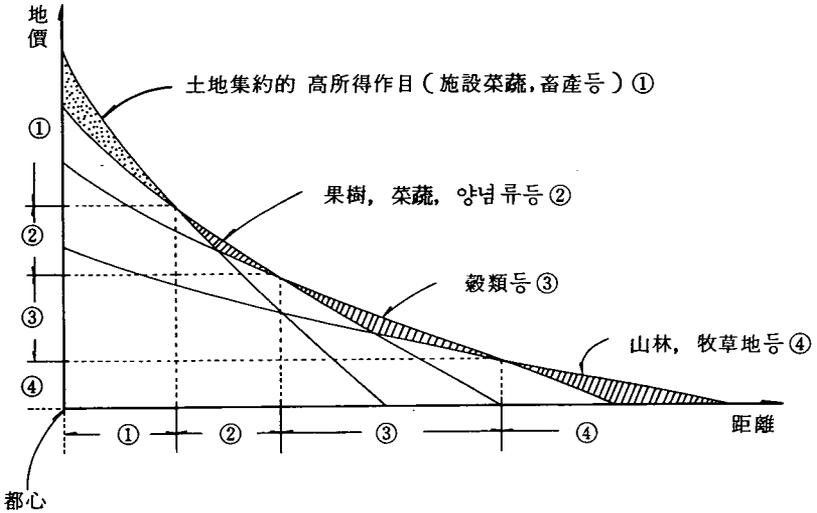


圖 2 - 3 地價와 農地利用의 關係



의 距離, 地價 등의 差異에 의해서 都心地와 가까울수록 土地의 利用은 集約的이며 이는 農業生産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2. 都市近郊地域의 農業과 都市近郊型 農業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都心地와 가까운 農村(또는 農業地域)일수록 農地利用이 集約化 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地域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首都圈이나 大都市 주변지역에 있어서는 1970年代부터의 人口의 都市集中에 의한 都市 팽창과 1986年の 아시안 게임 및 1988년의 제 24회 올림픽의 서울개최 등을 비롯한 각종 國際行事들로 인한 都市機能의 整備와 擴充을 위한 각종 開發事業은 해당지역 農家들의 農業生産이 集約化될 수 있는 時間的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빠른 速度로 進行되었고, 그 결과 地價上昇은 거의 파동에 가까울 정도로 이르기까지 하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大都市 주변지역의 상당수가 農地利用의 集約化 過程을 생략한 채, 곧바로 都市化 되어버렸으며, 酪農, 養豚, 養鷄와 같이 都市를 중심으로 한 集乳網이나 乳加工業體, 또는 屠畜場 등으로 인해서 대도시 주변지역에 集中되어 있는 作目도 있으나, 農地利用의 集約的 形態중 하나인 週年生産의 施設園藝는 大都市 주변지역보다는 高速道路, 産業道路 등을 포함한 道路網과 잘 연결되어 있는 平野나 準山間地域에서 더 大規模化, 集團化, 專門化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주변여건들은 都市近郊農業이라는 用語의 使用에 있어서 그 概念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必要性을 갖게 한다고 하겠다. 즉 都市近郊農業 또는 近郊農業은 都市近郊地域에서의 농업과 集約的 營農을 바탕으로 한 高所得 都市近郊型 農業을 동일하게 보는 概念上的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都市近郊農業이 고집될 수 있으려면 여타의 農業과 確實한 구분이 가능한 特徵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農地가 현저하게 集約的으로 利用된다거나, 또는 貯藏·保管·輸送 등

이 용이하지 않은 作目の 生産이 集中되어 있다는 것 등이 그 特徵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特徵을 가진 營農이 우리의 現實에서 보면 都市近郊地域을 중심으로 集中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大都市 주변의 일부 地域에서는 高所得을 위한 營農의 集約化보다는 오히려 財産的 收入을 기대하고 農地를 買入한 다음, 地價가 오를 때까지 農地를 방치하거나, 매우 消極的인 農事를 짓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第 3 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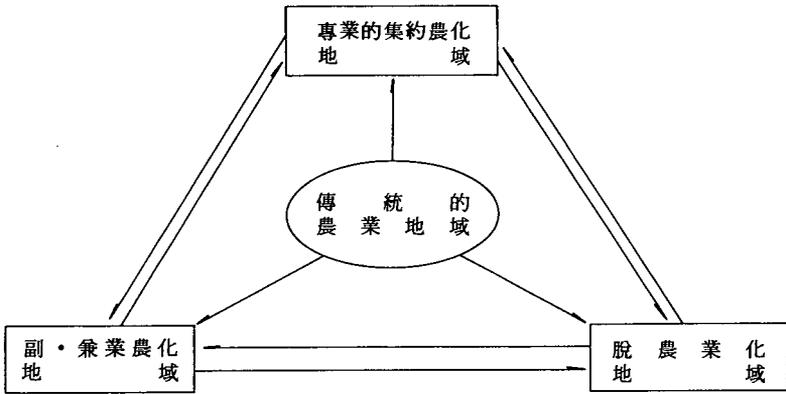
事例地域 農業構造의 變化實態와 그 要因

1. 都市近郊地域의 農業變化 類型分類

都市近郊地域 뿐 아니라 거의 모든 地域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變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곧 지금의 狀態 또는 現狀이란 계속되는 變化過程중 어느 한 過程 또는 部分일 뿐,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느 地域이던지 그 地域의 現狀態는 과거로부터의 여러가지 要因들이 복합적이고 累積적으로 작용해서 形成된 하나의 모습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展開될 어떤 變化를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地域에서의 農業·農家の 變化는 <圖 3-1>에서와 같이 長期的으로는 일종의 순환, 또는 過程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長期的인 變化過程은 경우에 따라서 수십, 수백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떤 地域의 變化를 관찰·분석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변화”라는 時間的 制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도시근교지역에 있어서의 農業·農家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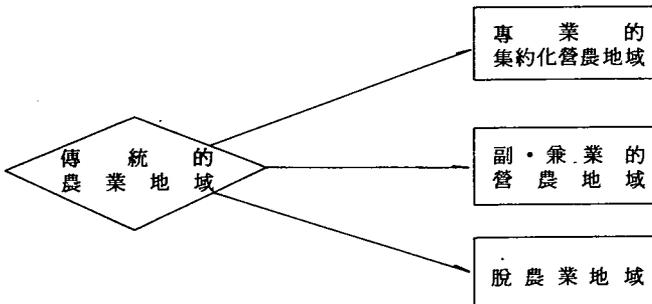
圖 3 - 1 農業地域의 長期的 農業·農家의 變化過程



變化를 조사·분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傳統的”이라고 말할 수 있는 農事를 짓던 때를 始發點으로 하고, 그이후부터 현재까지의 變化로 그 범위를 制限했다.

이러한 時間的 制限을 전제할 경우, 都市近郊地域에서의 農業·農家의 變化는 <圖 3-2>에서와 같은 3가지 方向으로 진행, 또는 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傳統的인 農事가 이어져 오던 都市近郊지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가지 要因들에 의해서 專業的 集約化 營農地域, 副·兼業的 營農地域, 또는 脫農業地域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圖 3 - 2 都市近郊地域 農業·農家의 變化方向



이러한 變化類型的 分類는 어떤 地域에 대한 類型分類와는 달리, ① 지금까지의 變化過程 ② 現在の 狀態(모습) ③ 앞으로의 變化展望 등 過去, 現在, 未來의 3가지 部分이 모두 고려된 說明이 가능해야 한다.

어떤 地域의 類型分類는 等質地域區分法, 機能地域區分法과 같은 地域의 種類에 의한 地域區分論¹⁾과, 單純複界基準法(Simple - Multicriteria Method), 多變數分析法(Multifactor Analysis)과 같은 變數의 種類에 의한 地域區分論²⁾ 등이 이용되기도 하며, 우리 나라의 農村地域에 대한 區分은 <表 3-1> 및 <表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觀點에서 試圖된 바 있다. 또한 日本에서는 農外就業을 기준으로 한 農村의 地域類型과 空間類型的 分類³⁾가 試圖되기도 했다.<表 3-3>.

表 3-1 우리나라 農村地域의 類型區分에 관한 主要研究

學 者 및 論 文 題 目		發 行 處 및 發 行 年 度	
金聖昊	農業地帶의 設定과 作付體系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4
徐贊基 李中雨	韓國의 農業地帶 區分	文教部 政策課題 研究報告	1977
朱奉圭	農業地帶 區分 設定에 관한 研究	農業政策研究, Vol. 8, No. 1	1981
金沅根	韓國의 農業地帶에 관한 研究	農業政策研究, Vol. 9, No. 1	1982
姜奉淳	主要 生産調整 指向作目的 地域 特化에 관한 研究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金基赫	作物特化도에 의한 韓國의 農業 地域 區分	地理學研究, Vol. 10.	1985
柳祐益	農村地域의 空間的 特性和 開發 戰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崔洋夫 外	農村地域綜合開發에 관한 研究 ^[4] - 一定生活圈 設定 및 類型化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資料: 李政紀, 「韓國農村地域의 類型區分에 관한 研究」, 1988. 2.

都市計劃學 碩士學位 請求論文, 서울대 環境대학원.

- 1) John Glassen, 「An Introduction to Regional Planning」, 1975, pp. 24 ~ 30.
- 2) David M. Smith, 「Patterns in Human Geography」, 1975.
- 3) 山本正三, 田林明, 「北海島における 農村空間配分」, 人文地理學研究, 筑波大學, 地球科學系, 1980.

表 3-2 우리나라 農村地域의 類型區分 事例

金 聖 吳		徐 贊 基		朱 奉 圭	金 耘 根		姜 奉 享	金 基 赫	柳 佑 益	崔 洋 夫		
大 圖	中 圖	農 業 地 帶		地域農業開發을 위한 類型	大 圖	中 圖	結合作目數	作物特化度	接 近 度	大 分 類	小 分 類	
I. 山間圖	1. 東部山岳	I. 畜作地帶	1. 경기미단작형	I. 產地農業地 域 II. 近郊農業地 域 III. 中小都市周邊農業地 域	I. 南海岸 農業園	1. 南海岸柑橘	I. 3 作目結合 II 4 作目結合 III 5 作目結合 IV 6 作目結合 V. 7 作目結合	I. 都市近郊農業地帶 II. 平野混合農業地帶 III. 山間多角化農業地帶 IV. 內陸農業地帶 V. 山間田作農業地帶	I. 大都市近郊農村地域 II. 山間農村地域 III. 軍事地區의 農村地域 IV. 海岸, 島嶼農村地域 V. 一般 農村地域	1. 大都市近郊農村型 2. 一般 農村型 3. 特殊 農村型	1. 수 도 권 2. 부 산 권 3. 대 구 권 4. 대 천 권 5. 광 주 권 1. 평 야 형 2. 중 간 형 3. 산 촌 형 1. 접 적 지 역 2. 도 시 지 역	
	2. 南部山岳		2. 전북미단작형			2. 南海島嶼						
	3. 東部山間		3. 경기평야			3. 南海園藝						
	4. 東部山麓		4. 강원산간			4. 西南海岸						
II. 京畿圖	1. 京畿北部	5. 충남미맥형	II. 混作地帶	II. 湖 南 工業園	1. 湖南內陸	II. 湖 南 工業園	3. 湖南平野	III. 山間多角化農業地帶 IV. 內陸農業地帶 V. 山間田作農業地帶	IV. 海岸, 島嶼農村地域 V. 一般 農村地域	2. 一 般 農 村 型	1. 평 야 형 2. 중 간 형 3. 산 촌 형 1. 접 적 지 역 2. 도 시 지 역	
	2. 京畿南部	6. 호남미맥형			2. 湖南內陸							3. 湖南中山間
III. 忠清圖	1. 平嶽山間	7. 영남미맥형	III. 田作地帶	III. 嶺 南 農業園	4. 性湖南山間	3. 東海內陸	4. 慶南內陸	5. 慶南山間	V. 一般 農村地域	3. 特 殊 農 村 型	1. 접 적 지 역 2. 도 시 지 역	
	2. 錦江東部	1. 경기			1. 東海島嶼							5. 慶南山間
IV. 慶尙圖	3. 瑞慶半島	2. 강원	IV. 園藝農業地 帶 V. 複合地帶	IV. 嶺 南 農業園	2. 東海南部	6. 慶北盆地	7. 慶北山間	6. 慶北盆地	V. 一般 農村地域	3. 特 殊 農 村 型	1. 접 적 지 역 2. 도 시 지 역	
	4. 錦江南部	3. 충청			3. 東海內陸							7. 慶北山間
	1. 慶北山間	4. 전북			4. 慶南內陸							
	2. 慶南山間	5. 경북내륙			5. 慶南山間							
V. 全羅圖	3. 慶北低地	6. 경북동안	V. 複合地帶	IV. 嶺 南 農業園	6. 慶南內陸	6. 慶北盆地	7. 慶北山間	6. 慶北盆地	V. 一般 農村地域	3. 特 殊 農 村 型	1. 접 적 지 역 2. 도 시 지 역	
	4. 慶南內陸	1. 동해 다작형			7. 慶北山間							
	1. 盧嶺山間	2. 산간			8. 慶北山間							
	2. 湖南內陸	2. 등부 보통형										
VI. 東海岸圖	3. 湖南平野	3. 산간	V. 複合地帶	IV. 嶺 南 農業園		6. 慶北盆地	7. 慶北山間	6. 慶北盆地	V. 一般 農村地域	3. 特 殊 農 村 型	1. 접 적 지 역 2. 도 시 지 역	
	4. 西南海岸	3. 충북 다작형										
	1. 東海北部	4. 접이										
	2. 東海中部	4. 경북 다작형										
VII. 南海岸圖	3. 東海南部	5. 접이	V. 複合地帶	IV. 嶺 南 農業園		6. 慶北盆地	7. 慶北山間	6. 慶北盆地	V. 一般 農村地域	3. 特 殊 農 村 型	1. 접 적 지 역 2. 도 시 지 역	
	1. 南海沿岸	5. 제주 다작형										
	2. 南海內海	6. 접이										
	3. 南海島嶼	1. 서울										
		2. 대구										
		1. 다도해										
		2. 서해도서										
7 大圖	24 中圖	22 農 業 地 帶		3 個 型	3 大圖	16 中圖	5 個型	5 個型	5 個型	3 大分類	10 小分類	

資料：李政紀，「韓國 農村地域의 類型區分에 관한 研究」，1988. 2. 都市計劃碩士學位 請求論文，서울대 환경대학원.

表 3-3 日本의 農村地域類型과 農村空間類型的 區分 事例

農村의 地域類型	農外就業狀況			農村空間類型
	世代主	처	子女	
A. 高度通勤兼業地域	○	○	○	A. 都市農業空間 A. 郊外農村空間
B. 通勤兼業地域	○	△	○	B. 都市 주변 農村空間
C. 不安定 兼業地域				C. 背後 農村空間
D. 農業主體地域				
D ₁ 農業自立地域	×		○	D ₁ 農業타월農村空間 : 農業自立
D ₂ 農業自立, 出家地域	□		○	D ₂ " : 農業家自立, 出家
D ₃ 自給農業 商業的農業, 不安定 兼業地域	×		☆	D ₃ " : 自給農業 " : 商業的業 " : 不安定兼業
D ₄ 自給農業, 商業的農業 出家地域	□	×	☆	D ₄ " : 自給農業 " : 商業的業 " : 出家
E. 農業副次地域				E :
E ₁ 技術出家地域	□	×	☆	E ₁ 出家農村空間 : 技術出家
E ₂ "	□	×	☆	E ₂ " : "
E ₃ 過少地域	×		☆	E ₃ " : 過少農村
F. 自營兼業地域				
F ₁ 觀光地域	×	◎	○	F ₁ 自營兼業農村空間 : 觀光
F ₂ 漁業地域	◎		☆	F ₂ " : 漁業
F ₃ 在來工業地域	×		☆	F ₃ " : 在來工業

註) ○ 항상 安定된 兼業 △ 항상 不安定 兼業

× 임시적 不安定 兼業 □ 季節出家

☆ 流出 ◎ 自營兼業

資料 : 李政紀, 「韓國 農村地域의 類型區分에 관한 研究」 1988. 2. 都市計劃學 碩士學位 請求論文,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러나 이상에서와 같은 어떤 地域에 대한 類型區分은 어느 한 시점에서 그 地域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냐에 대한 究明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變化類型的 分類는 그 變化過程과 現狀態, 그리고 變化展望의 相互關係를 핵심과제로 한다는 점에서 差異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變化類형을 區分하기 위한 分類基準은 變化를 把握하고자 하는 時期와 觀點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① 變化要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變化의 結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③ 變化過程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④ 그리고 變化의 要因과 結果를 모두 分類基準에 包含시킨 경우로 크게 나뉘어 질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變化요인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變化要因을 기준으로, 變化의 結果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變化結果를 기준으로, 變化要因이나 結果가 거의 비슷하면서도 그 過程이 각각 다를 때는 變化過程을 基準으로, 그리고 變化過程은 대동소이하나 그 要因과 結果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要因과 結果를 分類基準으로 택하게 된다.

本 研究의 首都圈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農業·農家の 변화는 都市化와 地價上昇을 그 주된 要因으로 하고 있으나, 그 結果는 각각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類型分類는 變化의 結果, 즉 現在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傳統的 農業地域을 始發點으로 하여, 현재 거치고 있는 變化過程을 기준으로 首都圈 주변지역의 農業·農家の 變化類型은 ① 專業農化 ② 副·兼業農化 ③ 脫農農業化的 3 가지로 大別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類型들이 현재 거치고 있거나 또는 거처온 變化過程을 서로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表 3-4>에서와 같다고 하겠다.

먼저 專業農化 地域은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이 도입되며, 이는 地域內的 先進農家들에 의해서 도입되는 경우도 있고, 外地로부터 流入된 농가들에 의해서 소개·도입된 경우도 있다. 또한 高所得 作目的 도입

表 3 - 4 首都圈 周邊地域의 農業·農家の 變化類型과 變化過程

變 化 過 程 別	變 化 類 型 別		
	專 業 農 化	副·兼業農化	脫 農 業 化
土地所有의 再編成		○	○
農家の 再編成(農家の 流出入)		○	○
高所得 都市近郊型作目の 導入	○	○	
營農의 機械化	○	○	
農外所得의 比重增加		○	○
世代交替		○	○
農事의 마감			○

으로 農家の 財政的 能力이 향상됨으로써, 기존의 농농사에 대한 機械化가 용이하게 추진되기도 한다.

副·兼業農化 地域은 地域開發事業 등으로 인한 地價의 上昇과 활발한 土地去來 및 土地所有의 再編成을 經驗하면서, 農土를 賣却한 原住農家들의 流出과 農地를 買入한 不在地主들의 賃貸地를 賃借한 流入農家들에 의해서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이 導入되기도 하고, 잔류한 原住農家들 중에서 일부는 子女들의 經濟圈에 吸收되면서 農事가 副業의 으로 바뀌는 등의 과도적 現狀들이 混存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商業, 工業 또는 住居地域化 되면서, 貫房이나 轉貫需要가 증가하고 부분적으로는 靑年層 中心의 子女들에 대한 在村農外就業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農外所得이 증가하고 農業所得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農外所得의 增加로 인한 農家財政의 여유와 農業勞動力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努力이 營農機械化를 促進시키기도 한다.

脫農業化 地域은 高所得作目の 도입이나 營農機械化의 過程이 生략된 반면, 土地所有의 再編成, 農家들의 流出 및 住居目的의 人口流入 등에 의한 地域住民들의 再編成, 農外所得의 增加 및 子女들의 經濟圈으로의 吸收, 營農後繼世대의 斷切, 農事의 마감 등의 過程을 경험한다.

本 研究에서 脫農業化 地域을 제외시키지 않은 것은, 脫農業化 되었다는 結果보다는 脫農業化에 영향을 미친 要因과 그 變化過程을 규명함으로써, 脫農業化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밝히는 중요한 資料가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專業農化 地域

가. 南楊州郡 和道面 車山 2 里

① 地理的 位置와 營農條件의 變化

南楊州郡 和道面은 서울市廳을 기점으로 東東北 方向으로 30 km 반경 안에 位置하고 있으며, 서울-春川間의 4차선 京春國道(46번 國道)와 京春線 鐵道가 東西로 貫通하고 있는 곳이다. 面所在地인 磨石偶里는 서울의 淸涼里역을 기점으로 한 京春線 列車와 청량리 역과 磨石偶里를 왕복하는 30번 市內버스(경기도 시내버스), 그리고 상봉동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한 시외버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淸涼里圈까지의 交通距離는 약 1시간정도이다.

車山 2 里는 和道面의 9개 行政里 중의 하나로, 天磨山(해발 812.4 km)으로 부터 남한강변인 금남리까지 이어지는 해발 4~500 m 높이의 山脈으로 東, 西, 南쪽이 둘러쳐져 있는 계곡의 끝마을로서, 磨石偶里-車山 2 里間의 거리는 4~6 km에 불과하며, 市內버스는 1975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현재는 6시 50분 부터 21시 40분까지의 사이에 매일 10회씩 왕복하고 있다.

車山 2 里에는 현재까지도 兪氏의 姓을 가진 農家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서울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氏族마을로서의 特徵을 나름대로 지니고 있는 傳統的인 農村마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마을에는 모두 149 家口에 719명의 人口가 살고 있으며(1989年 1月기준), 그

의 대부분이 農家들이다. 물론 1982 年에 한 家具工場이 入住한 것을 始發로 '89 年 8 月까지 3 개의 家具工場과 1 개의 機械工場이 들어옴으로써 모두 4 개의 工場이 稼動中에 있으나 4~5 개 家口가 工場을 따라서 轉入해 왔고, 마을사람 10 여명이 雜役夫로 가끔 就業하곤 할 뿐, 별다른 변화를 마을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農家의 子女들이 成年이 되어 職場生活을 하거나 結婚하여 分家하는 경우, 서울이나 九里市 또는 漢金市 등 가까운 곳으로 내보내고 있어서 家口數나 人口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젊은 층의 離村은 상대적으로 在村人口의 노령화를 가져옴으로써 農業勞動力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農地나 林野의 去來에 있어서도 私有林중 일부가 管外人에 의해서 墓地用으로 사들여진 정도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서울의 淸涼里-망우리를 거쳐 덕소~팔당~양평~횡성에 이르는 6번 國道の 덕소에서 와부읍 월문리와 和道面 車山1리를 거쳐 京春國道上의 磨石偶里를 잇는 106번 道路의 開設工事が 1988 年부터 시작되면서, 絕對農地인 논의 경우, 종전의 坪當 3~4 만원에서 6 만원으로 2 배가량 上昇했으나 實際 去來는 거의 없으며, 1989 年 5 월에는 和道面 全體가 土地去來許可地域으로 告示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相對農地인 밭의 경우에도 去來가 거의 없으며, 建築許可가 가능해도 坪當 6 만원 내외에 머물러 있다.

한편 戶當平均 耕地規模는 이 마을에서 비교적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15개 農家정도가 논 3~4,000 坪에 밭 1,000 坪 정도로 모두 4~5,000 坪의 農耕地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農家들은 논 1,000~1,500 坪에 밭 1,000 평 정도를 耕作하는 自作農이다.

②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車山2리는 耕作을 위주로 한 매우 평범한 農村마을로서, 논과 밭의 비율은 대략 6:4 정도로 논이 약간 많지만, 논은 주로 水稻1耗作, 밭은 일반적인 채소류와 마늘, 강낭콩 등 半自給의 半商業的 作目的 生産에 利用되고 있다. 다만 3~4 年前부터 耕作規模가 크지 않은 3개 農

가가 각각 60~70坪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느타리버섯을 副業的으로, 주로 농한기에 栽培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車山2리의 農業·農家に 가장 큰 變化를 가져 온 것은, 1965년에 처음으로 젓소 20頭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이다. 우리나라에 酪農이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던 1965년에 젓소 5마리씩을 가진 4개 농가가 이마을로 移住해 옴으로써, 젓소가 導入된 이래 1989年 8月 현재 모두 600頭의 젓소가 40개 농가에서 飼育되고 있다. 40개 農家 중 10개 농가는 戶當平均 30~40頭씩을 사육하는 소위 酪農專門農家이고, 나머지 30개 농가는 飼育頭數가 10頭 정도인 耕種+酪農의 複合營農農家들이다. 한편 논농사는 1988년에 收穫作業이, 그리고 1989年 봄에는 移秧作業이 100% 機械化 되었으며, 1989. 8 현재 移秧機 9대, 콤바인 1대, 바인더 2대가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이 마을의 전체 논농사는 모내기가 1주일, 수확이 10일 정도 소요됨으로써, 勞動盛需期의 일손 부족현상이 금년 봄부터 거의 完全히 해소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8년 봄까지만 해도 面所在地인 磨石偶里에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日當 男子는 15,000원, 女子는 10,000원 勞賃과 簡食 및 食事提供을 조건으로 모집했어야 했다.

물론 밭농사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外部로부터 勞動力이 供給되어야 하지만, 밭농사는 마늘, 강낭콩, 양배추, 열무 등이 市場出荷를 目的으로 栽培될 뿐이고, 그 規模도 크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이 自家消費를 중심으로 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이 커다란 制約要因으로 여겨지지는 않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酪農의 導入이 기존의 논농사 + 밭농사에 추가되어 複合化가 進行됨으로써, 農家の 財政的 規模가 커지고 安全度(財政的 安全度)가 改善되었으며, 이로써 젊은 층의 流出로부터 비롯된 勞動力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營農機械化가 비교적 빨리 推進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酪農으로 인한 畜産糞尿가 풍부해짐으로써, 기존의 耕種農事는 肥料費의 절감효과는 물론 農土培養과 地力增進이 꾸준히 계속되어 그 효과가 定着되었고, 畜産公舍는 다른 地域들에 비해서 거의

表 3-5 車山 2 里의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1965 年 以前	1965 年 ~ 1980 年	1980 年代以後~ 現在
○ 傳統的인 畚作+田作地域	○ 1965 : 4 個 酪農立志農家 의 流入·定着 ○ 一部 原住農家の 酪農導入 (10 戶; 30 ~ 40 頭의 專門農家, 30 戶; 畚作+ 田作+酪農의 複合營農農 家) ○ 100 戶; 耕種農家(畚作+ 田作)	○ 畚作의 機械化(移秧 : 100 %, 收穫: 100 %)

問題視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車山 2 里의 農業·農家の 變化를 要約해 보면 <表 3-5>에서와 같다고 하겠다. 즉 1965 年이전까지의 전통적인 耕種 위주의 農村마을에서, 1965 年에 酪農을 目的으로 移住해온 4 개 농가를 계기로 酪農이 導入되어 꾸준히 擴大됨으로써, 일부는 專門酪農農家로, 일부는 畚作+田作+酪農의 複合營農農家로, 그리고 상당수의 原住農家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畚作+田作의 耕種農家로 남게 되었지만, 마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畚作+田作+酪農의 複合營農마을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바뀌어 왔고, 새로운 所得源의 확보, 즉 酪農에 의한 財政與件의 뒷받침으로 부족해진 일손을 機械化로 극복해 오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② 變化의 特徵과 要因

車山 2 里의 농업·농가의 變化에 있어서 여타의 都市近郊地域의 그것과 구분될 수 있는 가장 큰 特徵은, 都市化에 따른 전반적인 營農與件의 惡化와 農業·農家の 成長萎縮 내지는 比重減少라는 일반적인 變化와는

달리, 농업·농가의 成長·發展이라는 方向으로 그 變化가 進行되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特徵은 車山2리의 地理的 位置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서울市廳을 기점으로 30 km, 그리고 서울市界인 망우리고개를 기점으로 15 km의 거리를 위치하고 있고, 서울의 東部市場圈인 淸涼里와의 交通距離가 1시간대에 불과하지만, 車山2리는 어떤 주요도로가 통과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道路가 끝나는 곳에 位置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車山2리는 北東쪽을 제외한 모든 方向이 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車山2리 스스로의 中心都市化나 또는 背後都市化가 거의 필요치 않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車山2리는 農業的 發展이 位置面에서 가장 有利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車山2리의 農業的 發展의 有利性을 바탕으로, 車山2리는 기존의 논농사 + 밭농사에 酪農이 추가되는 複合營農으로의 方向을 擇하게 된 점을 두번째 特徵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農家の 制限된 資源인 農耕地의 集約的 利用이라는 方向이 아니라, 耕種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畜産, 그중에서도 流入農家들에 의해서 도입된 젖소를 추가시킴으로써 專門化 보다는 複合化의 方向으로 發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複合化의 方向을 擇하게 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作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이 마을이 兪氏家門을 중심으로 질서가 유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保守性向이 강하여, 農農사를 重視하는 반면 밭농사는 自家消費를 위주로 하는 傳統的인 農事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젖소의 導入이 젊은 世代主, 그리고(또는) 農土가 充分하지 못한 家口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農地價格이 비싼 편이 아닐 뿐 아니라, 農地去來도 거의 없을 정도로 農家들의 財政狀態가 安定的이라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농지를 사들일 사람도, 농지를 매각해야 할 사람도 거의 없는 安定勢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安定維持 指向的 마을의 性格

은 다소의 모험을 전제해야 하는 어떤 큰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專門化의 過程에서 흔히 동반되는 靑壯年層 經營主를 중심으로 한 변화를 추구하는 性向이 강한 農家들의 增加와, 農耕地의 集約的 利用이 동반하게 되는 勞動力 需要의 增加를 뒷받침할만한 勞動潛在力이 車山2里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보다는 오히려 教育받은 젊은 層들의 離村이 農家의 機械化를 加速化 한 結果를 가져온 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상의 3가지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새로운 所得作目에 대한 專門化 대신에 기존의 農家 + 밭농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酪農이 補完作目으로 추가되는 비교적 단순하고 위험부담이 적은 複合營農化의 方向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車山2里의 變化過程에 있어서의 세번째 特徵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所得作目, 즉 酪農의 導入이 마을內의 先進農家들의 試圖나 指導機關들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酪農을 목적으로 流入·移住해온 農家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한마을에 새로운 所得作目이 導入되는 形態는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마을內의 先進農家의 試圖에 의한 경우(自求的 努力型), 두번째는 指導機關이나 政策當局에 의한 강력한 권유와 지도에 의한 경우(指導普及型), 그리고 세번째는 車山2里와 같이 새로운 轉入農家に 의한 경우(轉入農家に 의한 形態)가 그것이다.

車山2里의 變化過程에 있어서의 네번째 特徵은, 전체 600여마리의 적소에서 나오는 풍부한 有機質肥料가 農家와 밭농사에 全量 利用됨으로써, 購入肥料의 投入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土壤의 物理的, 理化學的 性質이 꾸준히 向上되고 있을 뿐 아니라, 畜産糞尿에 의한 河川 및 生活環境의 汚染이 問題視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酪農만을 專門으로 하는 農家들 보다는 酪農을 補完作目으로 導入한 複合營農農家들이 더 많고 耕種農家(100호)와 酪農農家(40호)의 적절한 균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農業·農家の 發展展望

車山2里의 地理的 位置와 營農與件 그리고 지금까지의 變化過程을 종합해 보면, 이 마을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스스로의 中心都市化나 背後都市化가 進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農業的 發展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農事에 있어서도 현재의 農家 + 밭농사 + 酪農의 複合營農形態가 主流를 이룰 것이며, 主力作目은 農家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農業勞動力의 노령화, 풍부한 有機質肥料에 의한 耕種部分의 他地域에 대한 상대적인 有利性,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된 農家의 機械化 등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밭농사는 農家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勞動力을 必要로 하면서도 機械化가 어려운 實情이며, 酪農은 각종 乳製品의 需要增加가 둔화되면서 增産을 제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副作目 또는 補完作目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車山2里의 農家들이 農事에 있어서 当面하고 있는 農業勞動力의 不足과 老齡化는 1989년 초까지 農家에 대한 100% 機械化를 達成하면서, 이제 겨우 여유를 갖게 되었으나 教育, 또는 訓練받은 高級勞動力을 必要로 하는 集約的 專門化로의 方向轉換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 仁川直轄市 北區 防築1洞

1 地理的 位置와 營農與件的 變化

仁川市 北區 防築1洞은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25 km 반경 이내에 位置하고 있으며, 서울市界(金浦空港과 인접한 江西區 五穀洞) 및 富川市界(大壯洞)와는 약 4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는 1989. 1. 1 부로 김포군 계양면 방축1리에서 계양면全體가 仁川市 北區에 편입되었고, 이에 앞서 오래 전부터 仁川市의 市內버스 路線에 의해서 仁川市에 연결되어 있어서, 서울보다는 仁川의 외곽지역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仁川市 北區 防築 1 洞은 김포평야와 仁川市를 地形的으로 區分하는 계양산의 東便에 위치한 마을로서, 唐氏門中の 마을이다. 특히 防築 1 洞은 地形的으로 동쪽으로는 唐氏의 門中山이, 서쪽과 북쪽으로는 계양산이 자리하고 있어서 3면이 野山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직 남쪽으로만 트여 있어서 全體面積의 2/3 가 산이고, 農耕地는 1/3 에 불과하며, 農耕地 中에서도 논의 比率은 10 % 정도에 불과하여 발농사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또한 防築 1 洞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모두 開發制限區域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인천시의 외곽지역으로서의 都市化 또는 都市팽창의 영향을 여타지역에 비해서 거의 받지 않았던 곳에 속한다. 다만, 仁川市에 職場을 가진 영세가구들이나, 또는 市內에서 家畜을 기르던 농가들이 1970 年代 후반부터 地價나 住居費가 상당히 低廉하고, 都心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防築 1 洞으로 점차 流入됨으로써, 대부분이 農業에 종사하는 原住農家들의 비중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한편 이마을의 전반적인 耕地制限은 防築 1 洞으로 하여금, 農地의 集約的 利用形態에 속하는 施設菜蔬의 栽培와 젓소를 중심으로 한 畜産의 比重이 높은, 소위 高所得 都市近郊型 農業을 위주로 한 마을로 發展하게 한 要因으로 作用했다고 하겠다.

②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防築 1 洞의 농업과 농가는 1960 年代 중반까지만 해도 두드러진 變化가 없이 김포평야의 외곽에 위치하여,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발농사 위주의 농촌마을로서, 대부분 唐氏門中の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토마토와 쪽파를 위주로 한 비닐하우스 菜蔬栽培와 젓소사육이 防築 1 洞의 農業을 이루는 兩大기둥이 되어 있다.

施設菜蔬는 1965 년을 전후해서 가까운 걸포리에 사는 어느 篤農家가 비닐하우스 토마토栽培를 시작하여 큰 성과를 얻게 되자, 1970 년을 전후하여 防築 1 洞의 일부 농가들이 이를 도입하기 시작, 1983 년에는 10여 농가가 각각 600 ~ 700 坪의 비닐하우스에 토마토와 쪽파를 專門的으로 栽培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금까지 그 정도의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젓소는 1970年代 초에 젓소 2마리를 가지고, 畜産으로 성공해 보고자 이 마을로 移住해온 流入農家에 의해서 처음으로 導入된 이래, 꾸준히 擴大·普及되어 1983년에는 15~16개 농가가 많게는 70마리(최고규모), 적게는 1~2마리(최소규모), 일반적으로는 15~16마리 정도씩을 각각 사육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그 수준에서 약간의 增減이 있을뿐, 거의 고정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외에도 1980년대 초에 이곳으로 移住해와 700여명의 비닐하우스에서 튜넬립 등의 알뿌리 切花栽培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전혀 擴散되지 못했고, 양돈은 1982년에 이곳으로 移住해와 200頭的 양돈을 시작한 농가를 선두로, 1987년을 전후해서 양돈, 양계 등 仁川의 都心地에서 밀려나온 일부 농가들이 이에 合流한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防築1洞에서 대대로 살아온 原住農家들은 施設菜蔬의 栽培를, 그리고 流入農家들은 모두가 畜産部分을 主導하는 兩分的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토마토 栽培가 原住農家들에 의해서 導入되었고, 젓소가 流入農家에 의해서 導入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이를 설명해 줄만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한편 流入農家の 數가 10여가구 이상으로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면서도, 이들이 단순한 賃借農으로서가 아니라 耕地를 가진 自作農으로 定着해 있다는 것도 평범한 현상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防築1洞이 대부분 開發制限區域으로 指定되어 있고, 김포공항과 휴전선과 가까운 김포평야지역에서 몇 안되는 高地중 하나인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軍事上的 制約이 있어서 地價가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低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仁川市의 成長과 팽창으로 과거에 농사가 가능했던 지역들이 市街化 되면서, 都心에 不適合한 農家들이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防築1洞의 땅값은 1983년에 坪當 3만원이던 논값이 89년 9월 현재

4 만원으로 지난 7년동안 30% 정도가 올랐을 뿐, 여타의 수도권 주변지역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固定되어 있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바로 인접해 있는 병방동('88. 12까지는 김포군 계양면 병방리 이었음)은 곳곳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88년 초의 논값이 평당 15,000 원에 불과했으나 '89년 9월 현재는 5 만원으로 약 1년반 사이에 3배이상 올랐고 거래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특히 병방동의 地價는 형성된 去來時價인데 반해, 防築 1洞은 開發制限區域 指定이 앞으로도 해제될 전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去來가 거의 없고 다만 팔려는 사람들이 인근의 병방동 땅값에 빚대서 要求하는 땅값이라는 점에서 볼 때, 防築 1洞의 地價는 월등히 낮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농사를 主導하고 있는 經營主들은 거의 모두가 50대 중반 이상의 연령층으로서, 이들은 농업의 전망이 밝다거나 또는 열심히 農事를 지으면 장래가 밝아질 것이기 때문에 農事를 계속한다기 보다는, 轉業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대로 이어져 온 農土가 있어서, 農業勞動이 가능할 때까지는 農事를 계속하지만, 그 이후는 子女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겠다는 생각으로 農事를 짓고 있는 實情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떤 變化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投資에 대한 意慾이 거의 없이 비농업분야에 진출한 子女들의 經濟圈에 점차 吸收됨으로써, 농사는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過程에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防築 1洞은 地價나 住居費, 仁川市內와의 交通與件 등에서 매우 有利하기 때문에, 仁川市內나, 특히 富平工團에 職場을 가진 零細家口들의 流入이 1970年代 말부터 꾸준히 계속됨으로써, 1983년에 이미 流入家口의 數가 原住家口의 2배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 9월 현재 非農家對農家の 比率이 3:1 수준에 이르게 됨으로써, 生活下水,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住居 위주의 都市機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防築 1洞의 變化過程을 綜合해 보면, <表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즉 1970年代에는 先進原住農家に 의해서 施設菜蔬가 導入되고, 流入農家に 의해서 糞소가 도입되

表 3 - 6 防築 1 洞의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1965 年以前	1970 年代	1980 年代	1989 現在
傳統的인 발농사 地域(東, 西, 北의 三面이 山 으로 둘러싸인 唐氏마을)	○ 先進原住農家에 의한 施設菜소의 導入: 原住農家 27 戶(시설채소 15 戶, 酪農 12 戶) ○ 酪農立志農家の 流入: 流入農家 13 戶(젓소: 5 戶, 양돈·양 계: 7 戶, 花卉: 1 戶) ○ 都市零細家口の 流入시작(住居 目的)	거의 變化없음 ○ 都市零細家口の 流入계속: '83 년에 全體家口 의 과반수	○ 農事の 兼·副 營農化 및 農 事の 마감 ○ 農家對非農家の 比率 1 : 3 → 住居機能에 대 한 需要增大

는 등 高所得 都市近郊型 營農마을로 탈바꿈했었으나, 1980 年代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都市零細家口の 流入이 農家の 수를 훨씬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써 農業的 發展은 상대적으로 停滯된 반면, 住居마을로의 變化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라고 하겠다.

[3] 變化의 特徵과 要因

이상에서와 같은 防築 1 洞의 農業과 農家の 變化에 있어서 가장 特徵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變化의 初期段階에 高所得 都市近郊型 營農이 추구되었었다는 점일 것이다. 즉 Thünen의 弧立國 理論에서 提示한 6개의 農業生産圈域 중에서 腐敗危險性和 輸送費 負擔이 큰 農産物의 生産이라는 都市近郊 農業地帶가 갖는 特性을 防築 1 洞이 1970 年代 부터 經驗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넓은 草地나 放牧地를 必要로 하는

酪農이 都市近郊地域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實情은 우유의 蒐集網이 大都市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飼料에 있어서도 購入飼料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酪農을 都市近郊型 作目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防築 1 洞의 이러한 特徵은 防築 1 洞이 仁川市에 편입된 地域이라는 地理的 利點때문만이 아니라, 地形的 特性으로 인해서 開發制限區域으로 指定되어 있고, 이에 따라 地價가 낮고 土地去來도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 함께 作用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防築 1 洞은 그의 2/3 가 開發制限區域이기 때문에, 뒤에 언급할 安養市 坪村洞, 仁川市 北區 富平 4 洞, 城南市 福井洞 등에서와 같이 地價가 農業收益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上昇했고, 이로 인해서 非農家 실인즉 非農業用으로 農地를 買入하게 됨으로써 不實營農化를 거쳐서 非農地化하는 過程을 거치지 않고 變化의 初期段階, 즉 都心과의 交通·經濟距離의 단축 등과 같은 初步的인 都市化에 대한 農家들의 積極的인 對應이라는 형태의 土地, 勞動, 그리고 資本集約的인 農事를 1970 年代에 추구했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生産 또는 自然綠地 이외의 用途로 土地를 使用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農業收益이 地價上昇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地價가 낮기 때문에 기존의 農業이 계속되었고, 이 農業은 점차 都市近郊型 農業으로 發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防築 1 洞의 開發制限은 現在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土地去來는 여전히 全無한 편이고, 地價도 거의 變動이 없기 때문에, 토마토의 施設栽培나 酪農과 같은 都市近郊型 農業이 導入된 1970 年代 초반부터 현재까지 16~17 년동안에 이곳의 農家들은 더욱 集約的이고, 더욱 발전된 生産技術이나 高所得 作目 등을 도입하여 더욱 收益性이 높고 先進的인 農村으로 成長·發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거의 모든 經營主들이 50 代 후반으로, 자신들의 代에서 농사를 마감해가는 過程에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投資活動은 1980 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農家들 스스로가 農業의 收益性에 대한 展望이 매우

어둡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부분의 子女들이 非農業部門으로 진출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防築 1 洞의 농업과 농가의 변화에 있어서의 두번째 特徵은 “점진적인 兼業農化와 農事의 마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점진적인 兼業農化”는 非農業部門에 진출한 子女들이 父母를 떠나있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농가에 있어서는 防築 1 洞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出退勤하기 때문에 子女들의 給料收入이 農家所得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都市零細家口들의 꾸준한 流入으로 인해서 貰房 및 轉貰需要가 증가함으로써 賃貸所得이 추가되어 農外所得의 比重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農業所得의 絕對的 減少가 아니라 農外所得의 增加로 인한 農外所得의 比重이 증가함으로써 “점진적인 兼業農化”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子女들이 非農業部門에 진출하고 있어서 農事를 이어받을 營農後繼者が 없다는 점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1981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營農後繼者 育成事業에 의해서 防築 1 洞도 1985 년에 1 명의 畜産部門 營農後繼者가 選拔되어 支援되었으나, 이는 農事를 이어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일부 負債清算, 일부 積소購入(사실은 사전에 확보된 積소입)을 위해서 그의 父母에 의한 것일 뿐, 本來의 政策意圖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반면 이러한 경향은 都市近郊地域에서 營農後繼者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事實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營農後繼世代의 斷切은 현경영주 世代에 의한 “점진적인 農事의 마감”이라는 목표의 추구를 불가피하게 하는 가장 決定的인 要因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營農後繼世代의 斷切은 農業의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視覺과 이에 對應하는 積極적인 努力에 따라서 左右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防築 1 洞의 농업과 농가의 變化에 있어서 다른 類似地域들과 차이가 있는 또다른 부분은, 전체 40 여 농가의 1/3 정도에 해당되는 13 개 流入農家들이 모두 賃借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農地를 사들여 自作農으로 定着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地價가 저렴하면서도 仁川의 都心과 가깝다는 地理的 位置上的 有利性和 流入農家の 대부분이 仁川市 內에서 農土를 가지고 酪農이나 養豚·養鷄 등의 農事를 짓던 農家들로서, 상당한 財力을 가졌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流入 農家들의 農地買入을 바탕으로 한 自作農으로서의 定着은 1980年代 初盤에 있었던 現狀일 뿐, 그이후부터는 農家の 流入이 全無한 대신에, 住居를 目的으로 한 都市零細家口들의 流入이 꾸준히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는 두가지 事實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바, 하나는 農家戶數의 현저한 감소가 없이 住居地域化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980년대 초까지 農地規模가 극히 영세하거나, 나이가 많고 農事를 이어받을 後繼者도 마땅치 않은 原住農家들을 중심으로 農地去來가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활발히 진행되어 農地所有의 再編成이 일단 마무리 되었었으며 그후부터는 子女들의 給料收入, 貰房 또는 轉貰收入 등의 農外所得이 農家財政을 뒷받침하면서 農地를 팔아야 할 필요가 없는 農家들만 남게 됨으로써 農地賣却을 원하는 농가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배경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特徵外에도 앞에서 살펴 본 남양주군 화도면 차산2리에서와 같이 畜産의 比重이 높아서 化學肥料의 사용이 타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고, 農土培養이나 地力增進은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畜産公害問題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큰 差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車山2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農家들이 酪農과 耕種을 兼하고 있고, 논을 중심으로 한 耕地面積도 상당히 큰 편이지만, 防築1洞은 畜産農家와 施設菜蔬 栽培農家로 각각 專門化 되어 있고, 施設菜蔬 栽培面積이 밋이고, 7,000여坪에 불과한 반면, 젓소는 230頭, 돼지 300頭 등으로 畜産糞尿의 量이 월등히 많다. 또한 住居目的으로 移住해온 非農家の 숫자가 農家 숫자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비도 점차 잦아지고 있는 實情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防築1洞의 농업과 농가의 變化는 ① 初期의 高所得 都市近郊型 集約農化에 대한 경험을 거쳐서 ② 兼業農化의 점진적인 進行과 ③ 農業의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과 營農後繼世

대의 不足으로 인해서 現經營主 世代들의 점진적인 農事의 마감이 進行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인 반면, ④ 80年代 初半까지의 畜産農家 流入과 土地所有의 再編成 및 流入農家の 自作農으로서의 定着, ⑤ 都市零細家口の 꾸준한 流入으로 인한 地域住民의 再編成과 住居機能에 대한 수요증가, ⑥ 이와 함께 畜産과 耕種의 規模間의 不均衡에 의한 畜産公害 등이 여타의 類似地域들과의 差異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農業·農家の 發展展望

防策1洞의 앞으로의 展望을 農業的 視點에서 본다면,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高所得 集約農化 → 兼業農化 → 副業農化의 과정이 世代交替와 함께 進行되고 있고, 현재는 兼業農化의 初期段階가 進行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代 후반인 農家經營主들이 非業農部門에 진출한 子女들에 대한 家計依存度가 점차 높아지게 되면, 자신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 있을 때까지 농사를 계속할 뿐이고 그 이후는 子女들의 決定에 맡기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防策1洞이 아무리 都市近郊型 高所得 營農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高所得을 위해서 더욱 集約的 營農을 하는 地域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副·兼業農化 地域

가. 城南市 福井洞

① 地理的 位置와 營農條件의 變化

城南市는 서울의 南西쪽과 接해있고, 잠실대교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경부고속도로 판교 인터체인지로 이어지는 3번 國道가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다. 福井洞은 城南市의 가장 북쪽에 위치함으로써 江南區 細谷洞 및 松坡區 文井洞과 接해 있으며,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20 km 반

경에 위치하고 있고, 시내버스나 지하철(잠실역)을 利用할 경우, 서울 시청까지는 불과 45분정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성남-잠실간을 통행하는 수많은 시내버스로 사실상 서울生活圈에 해당되기 때문에 首都國衛星都市라고 할 수 있겠다.

福井洞은 1972年 城南市가 市로 승격할 당시까지만 해도 姜氏, 南氏, 威氏의 3姓이 주류를 이루는 農村地域으로서 거의가 논농사에 의존해 왔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市로 승격되면서 都市化가 빠르게 進行되고, 이와 함께 土地去來가 활발해졌고, 그중에서도 管外人의 土地買入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1988년말 현재, 福井洞 全體土地의 80% 정도가 管外人 및 非原住人の 所有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까지만 해도 110ha에 이르던 논면적은 1988년말 현재 57ha로 거의 절반가량이 道路의 擴張 및 開設, 下水處理場 建設 등으로 轉用되었다.

또한 활발한 土地去來로 地價는 垆地로의 轉用이 가능한 밭의 경우는 1972年の 坪當 25만원을 기준하더라도 1989년 7월 현재 500만원으로 20배가 上昇했고, 3번 國道변의 논은 같은 기간중에 坪當 7~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약 4배가 上昇했다.

한편 福井洞의 人口增加는 1978년말의 3,666명을 기준할 경우, 1983년말에는 5,281명, 1988년말에는 5,986명으로 63%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城南市의 都市化는 그러나 福井洞에서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크게 制約을 받고 있는 바, 이는 福井洞에 있는 거의 모든 논이 水利安全畚으로 옛부터 잘 整理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면적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이미 주로 서울에 居住하고 있는 管外人의 所有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農業的 成長을 기대하기 어렵고, 城南市의 입장에서 農業的 發展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惡臭 등의 公害와 관련된 畜産農家로 하여금 作目的 轉換이나 移住를 권유해왔고, 그 결과 지난 1988년에 마지막 남은 2개의 酪農農家가 畜産을 포기함으로써 '89년 현재 福井洞에는 畜産農家가 하나도 없는 實情이다.

특히, 城南市는 '88 서울올림픽 關聯施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

으며, 일부 종목의 경기가 城南市에서 치루어짐으로써, '87/'88년에는 상당한 都市開發事業들이 추진되었으며, 이로써 城南市の 都市化는 더욱 加速化했다고 볼 수 있겠다.

②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城南市の 이러한 전반적인 都市化에 따라서, 典型的인 農家지역이었던 福井洞의 농업과 농가도 많은 變化를 경험하게 되는 바, 특히 土地所有의 再編成과 함께 農家の 流出入에 의한 農家の 再編成이 심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農家戶數는 약 170 戶로 과거와 거의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즉 1989년 7월 현재의 170 여 戶 農家は, 그중 40 호정도만이 福井洞을 고향으로 하는 토박이 原住農家들이고, 나머지 130 호 정도는 1980年 以後에 外地로부터 移住해온 轉入農家들이다. 그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都市化가 本格的으로 推進되던 80年代 初의 활발한 土地去來로 인해서 땅값이 크게 오르고, 道路가 새로 開設되거나 넓혀지고 建物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福井洞의 主된 産業이었던 農家를 대대로 지어오던 原住農家들은, 그중 일부가 일찌감치 非農業部門으로 轉職·進出하기도 했으나, 상당수는 價格이 올라있는 논밭을 팔아서 地價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平택, 용인, 안성 등지에 福井洞에서 가지고 있었던 農地의 10~15 배에 이르는 넓은 논을 買入하여 移住해 갔다. 이는 곧 땅값이 싼 곳으로 移住하여 대규모 기계화 畝作農家로 변신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상당수의 農家들은 福井洞의 住宅을 그대로 所有하는 한편, 과거의 畜舍나 倉庫 등의 農業用 建物을 住居用으로 改造·修理·改良하여 賃房이나 轉賃를 주고, 平택, 안성 등지에 사둔 논은 現地農家들에게 賃貸함으로써 農家 스스로는 不在地主가 된 농가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한편, 福井洞으로 移住·轉入한 流入農家들은, 1980년에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선인장 專門栽培農家 4 戶가 이주해온 것을 시작으로, '80年代 초반의 서울의 江南區 瑞草洞에 대한 本格的인 개발로 상당수의 花卉農

家들이 移住해 왔고, '86 / '87년에는 '88년의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련시설의 건설과 連結道路의 擴張 및 開設 등으로 細谷洞, 逸院洞 일대의 花卉農家들이 移住해 옴으로써, 城南市 福井洞은 관엽식물 중심의 花卉園地化가 加速化 되었다.

1989년 7월 현재 福井洞을 지나 서울의 잠실대교로 直結되는 왕복 6차선의 3번 國道の 양편에 크고 작은 100여棟의 비닐하우스가 130여 農家에 의해서 設置되어 있는 바, 이중 原住農家は 2개 農家뿐이다. 또한 130여 花卉農家中, 약 30%에 해당되는 40여 農家만이 栽培와 販賣를 兼하고 있을 뿐, 나머지 90여 농가는 販賣場만을 갖추고 있는 사실상의 花卉商人들이다. 뿐만 아니라 規模面에서도 단 2개 農家만이 각각 1,000坪 정도의 비닐하우스를 갖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100~200坪 정도의 매우 零細한 實情이며, 특히 이들 零細花卉農家들은 모두가 賃借地로 되어 있다.

한편, 1989년 7월 현재까지 그들의 고향인 福井洞을 떠나지 않고 農事를 계속하고 있는 40여 原住農家들은, 그중 2개 農家가 이미 賣却해버린 自身들의 1,000평 정도씩의 포도원을 賃借하여 果樹農事를 계속하고 있고(經營主의 나이가 60세 이상임), 2개 農家가 花卉農家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와 같은 農家 중심의 농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들 畵作農家の 耕作規模는 일부 所有, 일부 賃借 등으로 다소의 변화가 있으나 戶當平均 畵作規模는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되었다. 특히 그중 2개 農家は 父子가 舍心하여 農事에 主力함으로써 10,000여평씩의 農사를 짓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까지는 集團化되어 있는 畵作地帶가 大規模 住宅團地나 學校 등과 같은 都市機能地域으로 바뀔 것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넓게 퍼져있었기 때문에 農事에 대한 積極性이나 機械化에 대한 投資가 기피되어 왔고, 이 때문에 '89년 봄 처음으로 福井洞에 移秧機가 보급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福井洞의 原住農家들은 일부 非農業部門으로 진출한 경우를 제외하면, ① 農事를 계속하고, 擴大하기 위해서 다

른 農業地域으로 移住해 갔거나, 또는 ② 그대로 남아서 논농사에 主力 하되, 管内農地의 不在地主化에 의한 賃貸地를 賃借함으로써 耕作規模를 擴大한 경우로 나뉘어 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非農業部門으로 진출했거나 他地域으로 移住해간 原住農家의 자리를 花卉農家の 流入으로 메꾸어 놓았기 때문에 農家戶數의 外形의인 변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다.

花卉農家들의 流入은, 우선 福井洞의 農地를 買入한 不在地主들이 그 땅을 賃貸해 주고자 하는 供給意圖와, 높은 地價를 감당할 財力은 없으나, 都心과 멀리 떨어져 있기 어렵고, 賃借料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高所得 作目인 觀葉식물 중심의 花卉農家들이 都心開發(강남구 서초동, 세곡동, 송파구 일원동 등)에 의해서 밀려남으로써 매우 활발했다고 생각된다.

福井洞 全體土地의 80%가량이 管外人의 所有이고, 그 대부분이 賃貸되고 있고, 1982년(서초동)과 1987년(세곡동, 일원동)을 전후한 두차례에 걸친 花卉農家들의 大規模 移住로 인해서, 밭에 대한 賃借料는 '88년에 坪當 2,000원/年에 이르렀고, '89년 7월 현재에는 그 두배인 坪當 4,000원/年으로 올랐다. 이는 盆唐新都市建設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 지역의 花卉農家들이 移住해 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絕對農地가 대부분인 논은 '89년 봄에 200坪當 쌀 1가마(80kg)이었으나, 3번 國道와 接해 있어서 흙을 채워서라도 地盤을 높여 비닐하우스를 設置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賃借料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논농사를 지으려는 農家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며,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은 낮은 機械化率과 높은 勞賃水準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福井洞의 農業勞動力 需給은 다른 産業分野와 마찬가지로 1980년부터 福井洞 檢問所 옆의 공터에 自然發生的으로 形成되기 시작한 가칭 “人力市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평소에 100명정도, 많을 때는 300~400명 정도의 勞動力이 매일 이 市場을 통해서, 福井洞의

農業勞動力 뿐만 아니라 人力을 必要로 하는 서울, 성남시 등의 인근지역에 조달될 정도로 定着되어 있다.

賃金水準은 作業의 種類와 男女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벼베기와 모심기 作業에서는 '88/'89 년을 기준할 경우, 아침 7시부터 18 시까지의 作業과 食事提供을 조건으로 1人當 2만원 / 日, 그중 인솔자에 해당되는 소위 十長이라는 사람에게는 25,000 원 / 日이었다. 이는 곧 福井洞에서의 農業勞動力은 非農業分野들과 똑같은 여건하에서 競爭的으로 확보되고 있으며, 우리 農村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품앗이 노동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表 3-7 福井洞의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1960年代	1970 / 80年代	1989現在
<p>傳統的 畜作地域 (姜, 南, 咸氏의 3姓이 主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土地所有의 再編成 ('70 ~ '85 / '86) • 農家들의 再編成 <p>170여 原住農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在村 (40戶) 移住 (130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流入 (130戶) <p>※ 移住 (流出) 農家 : 평택, 용인, 안성 등지에 약 10倍面積의 畓을 買入</p> <p>※ 流入農家 : 대부분 流浪農家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1期 : 1980年代初, 서초동일대 花卉農家 • 第2期 : 1986 / '87, 세곡동, 일원동 일대 花卉農家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狀維持 (副·兼業農) 大農化 (自作+賃借) 脫農 大農化 (自作) 不在地主化 (脫農) 一時定着 (施設面積 150坪內外)

이상에서의 농업과 농가의變化를 要約해 보면, <表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1970 年을 전후해서 시작된 土地所有의 再編成은 1980 年代 중반까지 일단락 되었으나 1982 年과 1987 年을 전후한 花卉農家들의 두차례에 걸친 農家流入과 福井洞을 떠난 農家 등으로 農家들의 再編成이 뒤를 이었으나 流入農家들의 農業生産基盤이 매우 취약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城南市의 意圖에 따라서는 이들 花卉農家의 대부분이 또다시 밀려나야 하는 流浪農家化 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變化의 特徵과 要因

이상에서와 같은 城南市 福井洞의 농업과 농가의變化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徵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傳統的인 논농사 지역이었던 福井洞의 農業은 原住農家들에 의한 논농사의 계속과 流入農家들에 의한 花卉農家の 集團化라는 兩分된 方向으로의 變化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變化는 都市化에 따른 土地의 用途變更 및 이에 따른 地價의 上昇과 土地去來의 活性化 등과, 이를 계기로 계속해 오던 논농사를 통해서 成長·發展하고자 했던 상당수의 原住農家들이 상대적으로 地價가 싼 農業地域으로 移住해 갔으며, 福井洞의 農地를 買入한 非農家들이 이를 賃貸해 주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의 江南地域에 대한 本格的인 開發로 移住가 불가피해진 서초동, 세곡동, 일원동 등지의 花卉農家들이 賃貸借가 용이해진 福井洞으로 流入되면서 農家들의 再編成이 진행되었다. 江南區 瑞草洞의 開發이 本格化되던 1982 年에 福井洞의 地價는 밭의 경우 이미 坪當 100 만 원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地價를 감당할 수는 없었으나, 그대신 賃借가 용이했고, 특히 층층히 積載할 수 없는 運送上의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畚卉인 觀葉식물의 栽培는 消費地인 大都市와 멀리 떨어져서 위치하기 어려운 반면, 비교적 高所得作目이라는 점에서 볼 때, 福井洞의 花卉團地化는 그 위치와 農地賃貸借의 용이성, 즉 不在地主化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原住農家들에 의한 農耕의 主力作目化는 비록 최근에 機械化되고 積極化 되는 하였으나, 초기단계에는 都市化에 의한 農地의 轉用이 우려됨으로써 機械化나 耕作規模의 擴大 등을 추구할만한 中長期的인 農耕의 지속에 대한 意欲이 뒷받침되지 않았었으나, 최근에는 都市化를 위한 開發事業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에 의해서 畝의 轉用에 대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지면서, 不在地主化한 農地의 賃借를 통해서 耕作規模를 늘리고, 機械化되기 시작한 셈이다.

둘째, 都市近郊地域에서의 栽培가 상대적으로 有利한 것으로 알려진 酪農, 施設菜蔬, 花卉 등의 몇가지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중에서 花卉 作目이, 그중에서도 觀賞식물의 栽培가 集團化되었다는 점이다.

즉, 福井洞에서는 1980年을 전후로 2개의 原住農家에 의해서 施設菜蔬의 商業的 栽培가 試圖되었던 흔적만 있을 뿐이고, 전체 170여 農家中 130여 농가가 觀賞식물을 主力作目으로 한 花卉農家라는 것이다. 우선 施設菜蔬 農事가 지속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觀點에서 설명될 수 있겠으나, ① 높은 地價와 勞賃 ② 그리고 어떤 農事보다도 잔손이 많이 가고, 年中 내내 일해야 하는 施設菜蔬 農事에 대한 매력의 상실이라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地價의 上昇으로 많은 富를 실현한 主위의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반면에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힘들게 일해야 하는 施設菜蔬農事에 대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비싸진 農耕地를 더욱 集約적으로 利用함으로써 高所得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年中生産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를 갖춘 週年 生産體制로 전환해야 하겠으나, 이에 동반되어야 하는 充分한 勞動力의 확보는 都市化에 따른 非農業分野에 대한 就業機會의 확대로 오히려 어려워졌고, 이로 인한 勞賃上昇은 施設菜蔬의 採收성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地價와 勞賃이 상대적으로 싼 地域에서의 大規模 또는 大單位 施設菜蔬栽培가 그동안 크게 향상된 道路事情과 輸送手段, 通信施設 등으로 인해서 市場主導權에서 뿐만 아니라 採收성에 있어서도 比較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한편 花卉作物 중에서도 땅에 뿌리를 내려서 商品을 生産해야 하는 切卉나 苗木보다는 花盆에 심어진 觀葉식물을 主力作目으로 集團化 된 것은, 地價가 높을수록 土地의 經濟的 利用度가 높아야 하고, 農地의 收益性과 利用度는 商品, 즉 農作物의 廻轉速度가 빠를수록 有利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즉 花盆에 심어진 商品이 栽培場 겸 陳列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동안 머물렀다가 팔려 나가는 것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切卉나 苗木보다 有利하며, 특히 觀葉식물은 비교적 高價品에 속한다.

또한 觀葉식물은 상당한 크기로 苗木을 길러내고, 이를 中間商品으로 購入하여 高級화분에 옮겨심거나 支柱를 세우고, 이끼를 추가하는 등의 商品化 過程을 거쳐 陳列場에 진열하여 팔려 나갈때까지 栽培(管理)되는, 소위 垂直的 分業化가 상당히 定着되어 있어서, 그의 마지막 단계인 商品化과정을 專門化한 農家 혹은 商人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觀葉식물이 集團化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서울의 서초동, 세곡동, 일원동 일대가 본래 觀葉식물을 위주로 한 지역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都市와 가까운 地域에 有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酪農, 養鷄, 養豚 등의 畜産分野는 악취와 위생상의 公害要因으로 인해서 억제 또는 규제됨으로써 '89년부터는 全無하다는 것이다. 이는 城南市의 都市化 施策에 의한 結果로서, 따로 설명할 必要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農業·農家の 發展展望

城南市 福井洞은 1972年 市昇格을 계기로 本格化하기 시작한 都市化가 '88 서울올림픽을 고비로 일단락되면서, 原住農家들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賃借를 통해서 耕作規模를 확대하고 機械化를 추진하는 등 積極化하기 시작한 반면에 轉入農家들은 비록 中長期的인 希望을 갖고 完全한 施設을 갖추기 어려운 賃借農에 머물고 있으나, 觀葉식물을 중심으로 한 團體나 協會 등을 結成하는 등의 商圏 내지는 主産地圈을 形成하기 위한 共同補助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福井洞의 農業은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에서 규정한 農地의 轉用禁止가 어느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것이다. 물론 都市機能을 위한 주요 道路나 市場, 住居空間, 下水處理施設 등의 기반시설이 상당부분 이미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公害防止와 綠地空間의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水利施設이 良好하고 集團化 되어 있어서 機械化가 용이한 農家에 있어서는 앞으로 일정수준까지는 成長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零細한 花卉農家(商人)들이 밀집되어 있는 3번 國道변은 ① 거의가 不在地主化 되어 있는 賃借地이고, ② 城南市의 낮은 주택보급률로 인해서 그 展望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자면, 특별한 조치나 배려가 없는 한 이들 花卉農家들은 大都市 안에서 (瑞草洞) 대도시 외곽(일원동, 세곡동, 금곡동, 분당동 등)으로, 대도시 외곽에서 또다시 다른 어떤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高陽郡 元堂邑 元興 1里

① 地理的 位置와 營農條件의 變化

高陽郡 元堂邑은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北西쪽 12km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서울의 시내버스 3개 노선과 좌석버스 2개 노선 등이 서울시청 및 南大門 일대와 元堂邑을 연결하고 있어서 交通距離는 45분 ~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元興 1里는 三松里, 東山里를 사이에 두고 서울의 西北地域인 恩平區 舊把撥洞과 이어져 있고, 1번 國道인 統一路上의 三松里 檢問所에서 갈라져 高陽郡 一山邑을 거쳐 坡州郡 金村邑에 이르는 310번 道路가 元興 1里를 東西로 통과하고 있다. 元興 1里는 1970年代에 이미 三松里를 기점으로 한 서울의 市內버스 路線이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과 매우 가깝고, 生活圈이 元堂邑에 속한다기 보다는 서울의 구과발이나 불광

등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이다.

元興 1리는 元堂邑의 30개 行政里 중 하나로 1988年末 현재 392 家口에 1,472 명의 人口가 살고 있으며, 그중 農家は 61 가구로 全體家口의 15.6%에 불과하며, 農耕地는 모두 59 ha로서, 그중 논은 64.4%인 38 ha이고, 21 ha는 밭이다. 또한 이렇다 할 工場도 눈에 띄지 않고, 韓牛나 鷄소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고, 다만 花卉農家들의 비닐하우스들이 가끔 눈에 들어오는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農農사를 위주로 한 農農사+밭農사의 비교적 典型的인 農村地域의 모습을 하고 있다.

②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그러나 최근 3~4年 동안에 內容의으로 상당한 變化가 일고 있다. 우선 農業의 가장 기본적인 要素에 해당되는 農地의 去來가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다. 즉 1984年까지만 해도 비교적 큰 變化가 없이 農農사를 위주로 한 서울과 가까운 農村마을로서, 農地價格도 논을 坪當 12,000 원, 밭은 25,000 원 水準이었고, 去來도 별로 없었으나, 舊把撥과 良才洞을 잇는 地下철 3호선의 建設이 計劃·着工되면서 토지거래가 차츰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地下철 3호선이 開通된 1985年을 고비로 土地去來는 投機性向을 띠게 되어 불과 1~2年 사이에 논은 위치에 따라서 5~10 萬圓 / 坪 (4~8 倍), 밭은 15~20 萬圓 / 坪 (6~8 倍)으로 크게 올랐다. 그러나 그후부터는 더이상 오르지 않고 '89年 8월 현재도 동일한 地價水準을 유지하고 있고, 去來도 다소 閑散해진 편이다. 물론 최근에는 一山 新都市 建設計劃이 추진되고 있어서 분위기는 들떠 있으나 거래는 閑散한 편이지만, 宅地나 商街의 去來는 활기를 되찾고 있다.

元興 1리의 논은 창능천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水利施設이 잘 갖추어져 있는 集團化되어 있는 水利安全畝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체 61개 농가의 60%인 35개 농가가 農農사에 注力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오랜 기간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온 原住農家들이다. 또한 農農사의 규모도 큰 농가들의 경우 5~6천평, 그외 대부분의 농가들은 2,500坪 내외로,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다소 큰 편이고, 기계화에 있어서도

'88/'89년에 移秧作業은 70%, 收穫作業은 60%의 機械化가 이루어져 있다 (콤바인 1대와 이앙기 4대).

한편 이러한 농농사의 機械化가 진행되면서, 農機械에 의한 委託作業料는 이앙기와 콤바인 공히 200坪當 15,000~16,000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人力에 의한 이앙과 벼베기 作業 勞賃은 200평당 食事와 簡食 외에 15,000원의 現金을 지불하는 과거의 勞賃水準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花卉農家나 기타의 일반적인 營農作業에 있어서의 勞賃이 食事 및 簡食提供과 現金 15,000원이 고 전반적인 農業勞動力의 供給不足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하철 3호선의 開通을 계기로 은평구 구과발동 및 통일로 주변의 서울근교지역을 중심으로 土地去來가 활발해지면서, 元興 1리의 農耕地도 그의 所有構造가 크게 두가지 經路를 통해서 상당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하나는 구과발 일대에 산재해 있던 花卉農家들이 그보다 더 외곽지역인 高陽郡 元堂邑, 神道邑 등지로 移住하기 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管外人의 土地買入이다. 그러나 城南市 福井洞이 경험한 投機性向을 동반한 土地所有의 再編成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이는 城南市가 江南地域開發에 뒤이은 市昇格 → 都市化의 過程을 거친데 비해서, 高陽郡 元堂邑은 軍事分界線(西部戰線)과 가깝지만, 서울과의 交通이 편리해질 수 있는 지하철 3호선의 開通을 계기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元興 1리의 土地所有 再編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논의 경우에 있어서, 1989년 8월 현재, 全體 논면적 38ha 중에서 약 10%정도인 4ha가량이 管外人의 買入으로 인해서 不在地主化된 것으로 把握되고 있다. 이들은 극히 일부가 賃貸되고 있을 뿐, 대부분은 自身들이 買入한 1,000~2,000坪의 논을 직접 경작하는 소위 出入耕作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出入耕作은 元興 1리 뿐 아니라 元堂邑의 여러 地域에서, 아직까지는 小數에 머물고 있지만 점차 擴散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都市居住者들의 出入耕作이 최고 2,000 평에서 平均 1,000 평 정도씩의 規模로서, 이들이 農業的 成長이나 發展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老後에 대비한 週末農場化나, 또는 對北韓關係의 改善이나 긴장완화라는 國家發展의 큰 흐름과 이에 따른 이 지역의 開發 및 地價上昇을 기대한 先取買의 性向이 없지 않고, 이로써 不實營農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밭에 있어서는 논보다 土地去來가 활발했고, 특히 구과밭 일대가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서 商業 및 住居地域化되면서, 이 일대에 散在해 있던 花卉農家들이 1984년부터 그보다는 땅값이 싼 외곽지역인 고양군 신도읍, 벽제읍, 원당읍 등의 統一路 주변으로 이주하기 시작함으로써, 전체 밭면적 21 ha중 약 40%에 해당되는 8 ha정도가 賃貸借에 의해서 花卉農家の 花卉栽培 檢 陳列場으로 利用되고 있다.

賃貸料는 賃借期間 1~2年の 경우 坪當 1,000 원 / 年, 4~5年の 경우 2,500 원 / 年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賃借期間이 길수록 賃借料가 오히려 비싼 것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될 경우 賃借期間이 길어야 하고, 施設花卉가 노지에 비해서 高所得 作目이기 때문이라는 현지의 설명이다.

1989年 8月 현재 元興 1里에는 30戶의 花卉農家가 있으나, 그중 6戶는 原住農家로서 논농사에 花卉를 도입함으로써 農家+花卉의 複合經營農家로 바뀌었고, 나머지 24戶는 주로 구과밭에서 移住해온 花卉農家, 즉 流入農家들이다. 또한 이들 농가중 4戶는 農地를 買入해서 移住해왔고, 그후 추가로 一部面積을 賃借하여 規模를 늘렸고, 나머지 20戶의 農家들은 所有農地가 전혀 없이 오직 賃借地에 依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花卉農家の 規模는 城南市 福井洞의 1~200坪보다 훨씬 큰 平均 1,000坪 水準이고, 그중에서 규모가 큰 농가는 2,000坪의 비닐 하우스를 갖고 있으나, 거의가 관엽식물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는 福井洞과 같으며, 그 이유도 城南市 福井洞의 경우와 같다.

한편 관엽식물 위주의 施設花卉를 제외한 이 지역의 밭농사는 이렇다할 主力作目이 없고, 극히 일부에서 비닐하우스 깃잎이 재배될 뿐 일반적으로는 고추, 파, 마늘, 콩, 팥 등이 다양하게 심어지고 있다. 특히 비

表 3-8 元興 1 里와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1984 年	1985 年 ~ 1988 年	1989.8 現在
傳統的인 畚作+田作 地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部分的인 土地所有의 再編成 (道路周邊, 田 중심) ※ 지하철 3 호선 ('85.양재-구과발)의 開通으로 '85/'86 年 投機性向을 띠. ○ 農家の 流入: '84/'85 지하철 3 호선 始發地인 구과발 일대의 花卉農家들이 유입됨. ('89.8 현재까지 24 戶) ○ 原住農家들의 經營多角化(一部) — 畚作+花卉: '85/'86(6 戶) — 畚作+酪農: '80/'81(3 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原住農家(34 戶) — 畚作: 25 戶 — 畚作+花卉: 6 戶 — 畚作+酪農: 3 戶 ○ 流入農家(24 戶) — 農地買入·定着: 4 戶 — 農地賃借·定着: 20 戶 ○ 出入耕作(5~6 戶) 1,500 坪 內外의 畚作

닐하우스 껌잎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自家消費을 위해서 그보다 약간 많은 量이 栽培되어 自家消費量을 초과하는 物量을 간헐적으로 蒐集商에게 販賣하는 소위 半自給의 營農形態에 머물고 있는 實情이다.

畜産分野에 있어서는 1987 年 이후, 韓牛는 한마리도 없으나 젖소는 3 戶의 原住農家에 의해서 현재 50 頭가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육농가들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展望을 밝게 보지 않으며, 이들 농가가 酪農專門農家가 아니라 既存의 畚作에 酪農을 추가로 도입한 畚作+酪農의 複合經營農家들이기 때문에 낙농분야는 현상유지 정도에 머물고자 하는 實情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元興 1 里의 農業과 農家の 變化를 요약하자면 <表 3-8>에서와 같다고 하겠다.

③ 變化의 特徵과 要因

이러한 元興 1 里의 變化는 그 方向이나 內容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城南市 福井洞과 매우 비슷하지만, 그 程度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한다고 하겠다. 즉 城南市는 스스로 市로 昇格되어 都市化를 推進함으로써 심한 變化를 경험한 반면에, 元興 1 里는 서울의 恩平

구 구과발 지역이 發展·開發됨으로써 주로 그 波及影響을 받게 되면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 變化가 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城南市 福井洞은 전체토지의 80%가량이 管外人에 의해서 買入되는데 비해서 元堂 邑 元興 1리는 논외의 경우 面積의 10%, 밭은 40%에 그치고 있다.

또한 原住農家가 논농사에, 流入農家들은 花卉의 關聯식물을 專門으로 한다는 점도 두 지역이 같지만, 福井洞의 原住農家들은 畚作만을 하고 있는 반면에 元興 1리의 原住農家들은 비록 그중 일부이긴 하지만 既存의 畚作에 花卉나 酪農을 추가로 導入하여 스스로 經營多角化를 추구한 점과, 流入된 花卉農家들의 규모가 城南市 福井洞은 150 坪 内外에 불과한 零細農家들인데 비해서 元興 1리의 경우는 1,000 坪 정도로서 그의 10 배 가까이에 이른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畜産部門에 있어서는 城南市 福井洞이 스스로 都市化됨으로써 公畜 등을 이유로 移住 또는 作目轉換을 유도함으로써 전무해진 반면, 元興 1리는 3 戶의 原住農家에 의해서 戶當 15 頭 内外의 踐소가 사육되고 있다. 이러한 飼育規模는 飼育農家들이 畚作+酪農의 複合經營農家라고는 하지만 所得源으로서의 比重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相應한 專門技術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元興 1리의 踐소사육은 전반적인 酪農製品의 需給展望이 밝지 못한 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에서 良質의 住居環境에 대한 관심과 需要가 점차 增大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의 擴大나 成長은 현재까지의 그것보다 더욱 制限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 본다면 城南市 福井洞의 畜産分野에 있어서의 變化는 수년후 元興 1리에서 再現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元興 1리의 農業과 農家の 變化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城南市 福井洞의 그것과 差異가 있는 부분은, 비록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農地의 管外所有者, 즉 不在地主에 의해서 出入耕作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元興 1 리는 비록 5~6개 家口에 그치고 있으나, 그보다 논농사의 비중이 크고, 一山新都市 建設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食寺 2리 (뒤에서 자세히 설명됨)에는 7~8개 가구에 이르는 등, 점차 擴散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크게 두가지 形態의 出入耕作이 행해지고 있는 바 하나는 논을 所有한 都市家口가 公休日이나 週末을 이용하여, 兄弟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을 동원하고, 일부 現地農民들을 日傭으로 하여 보내기 베풀기 등을 하고, 耕耘, 整地, 施肥, 防除 등은 現地農民들에게 일임하거나 現場에 나와서 指示·指揮하는 형태다. 즉 部分委託作業의 形態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모든 作業을 耕耘機, 移秧機, 防除機, 콤팩트 등을 가지고 賃作業을 하고 있는 農家들에게 作業別, 또는 모든 作業을 一括적으로 依頼하고, 農地所有主는 現場에 나와 뒷바라지 정도를 하는 形態다. 즉 經營은 所有主 自身이 하지만, 作業은 委託에 依存하는 소위 全面委託作業의 形態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管外 農地所有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原住農家들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음을 가끔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논농사를 副業的 또는 補完的으로 하는 농가나 또는 農事를 이어받을 後繼者가 없고 本人은 나이가 많아서, 非農業部門에 진출한 子女들의 장래를 위해서 農事보다는 農土를 지키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老齡農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出入耕作 또는 出入營農은 근래에 들어서면서 아직까지 정확히 調査된 바는 없지만, 그 形態도 다양해지고 상당한 速度로 擴散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土地公概念의 導入과 土地의 所有 및 利用에 대한 規制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에 따라서, 만일 土地去來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農地의 管外所有人, 즉 不在地主들은 賣却이 용이하지 못한 土地의 經濟的 利用方案을 적극적으로 摸索하게 될 것이며, 이는 出入營農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所有農地가 크지 않은 不在地主들은 상대적으로 賣却이 용이할 뿐 아니라 土地所有로 인한 다소의 不利益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장 내지는 週末農場化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管理人을 고용하거나 出入營農을 試圖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부분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이름난 流通業體가 그룹내에 확보했던 수만평의 밭을 이용하여 無公害菜蔬栽培를 試圖하기도 하고, 작게는 漢藥房이나 漢醫院을 경영하면서, 시골에 땅을 사두었거나 또는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에 녹용생산을 위해서 管理人을 두고 사슴牧場을 경영한다거나,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확보해둔 땅에 멧돼지나 오골계 등을 飼育한다거나, 또는 양어장을 경영하기도 하고, 소규모 果樹園을 확보해둔 都市家口들이 적지 않는 등 크고 작은 다양한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밭作物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入營農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다른 農作物에 비해서 밭갈이, 파종(또는 育苗), 김매기, 病蟲害 防除, 支柱設置, 收穫, 包裝, 出荷 등의 營農作業이 다양할 뿐 아니라, 作目的 選擇 및 轉換, 부단한 生育狀態의 점검과 조치, 상대적으로 變動幅이 큰 價格變動에 대한 꾸준한 關心, 種子, 肥料, 農藥 등의 다양한 農事資材의 確保 등, 收益性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크고 작은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元興 1리에서도 엿볼 수 있는 바, 不在地主化된 밭은 모두 賃貸되고 있는 반면, 논에 있어서는 벼농사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거의 똑같은 作業이 반복되기 때문에 비록 현재까지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이미 出入營農이 行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出入耕作은 보는 觀點에 따라서 否定的일 수도 있고 肯定的일 수도 있겠으나, 農業的 觀點에서 이를 否定的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不實營農에 대한 우려와 國民階層間的 위화감 때문일 것이다.

元興 1리의 농업과 농가의 변화에 있어서 두번째 特徵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原住農家の 流出이 거의 없고, 다만 老齡으로 인해서 子女들과 生活을 합치면서 農業을 떠난 소위 자연감소가 있었을 뿐이라는 점일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西部戰線으로 인해서 土地去來가 활발하지 못했고, 또한 絕對農地制度가 함께 作用하여 地價上昇을 크게 抑制하는 效果를 가졌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④ 農業·農家の 發展展望

元興 1 리의 앞으로의 농업과 농가에 대한 發展展望은, 지금까지의 變化過程과 要因들에 대한 觀察과 分析에 기초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장차의 여건이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에 기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다른 여타의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元興 1 리는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一山新都市建設과 관련된 서울과의 連絡交通網이 이곳을 통과하게 되고, 最近에 確定된 北部循環道路 路線이 행주대교 - 원당읍 - 우이동 - 상계동 - 퇴계원을 잇게 되는 등(1989. 8. 29. 9개 都市 高速化道路 路線에 대한 서울시의 確定發表), 首都圈의 膨脹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南北韓間의 긴장완화와 國土의 均衡開發 그리고 앞으로 實施될 地方自治制下에서의 地域開發事業 등이 어떻게 調整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어떤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現在로서는 短期的인 展望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현재까지 구체적인 計劃이 確定되어 있는 一山新都市 建設 및 이와 관련된 서울과의 연결교통망 등은 고려하되, 아직까지 設計가 끝나지 않은 事業計劃은 무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을 말한다.

이러한 前提下에서 元興 1 리의 앞으로의 變化는 기본적으로 은평구 구파발 지역의 팽창 내지는 都市化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一山邑의 新都市 建設에 따른 영향은, 예를 들면 지하철 路線의 通過地域으로서의 변화 등이 이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城南市 福井洞이 스스로 市級都市로 成長한 것과는 달리, 주로 주변지역의 開發과 成長에 따른 영향만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 元興 1 里 스스로가 水利安全畚을 위주로 비교적 良好한 集團化되어 있는

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조만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原住農家들에 의해서 主導되고 있는 논농사는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큰 변화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勞賃水準의 上昇과 農業勞動의 便宜化 등의 추세에 의해서 機械化가 進行되고, 그로부터 절감되는 勞動力의 農外就業으로 인해서 논농사가 副業的 또는 補完的 所得源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는 곧 生産量이 줄고, 所得도 다소 낮아지더라도 이 地域의 어떤 開發事業이 確定될 때 까지는 現在의 논농사 水準을 대체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流入農家들에 의해서 主導되고 있는 花卉作目に 있어서는, 城南市 福井洞에서와는 달리 상당한 發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元興 1 리의 花卉農家들은 統一路 주변지역의 270 여 花卉農家を 組合員으로 하고 있는 統一路 花卉協同組合이나, 신도읍을 주축으로 한 220 여 농가를 組合員으로 하고 있는 神道 花卉共販場에 함께 加入되어 있어서 이미 상당한 組織力을 갖고 있고,

둘째, 이들 農家の 施設規模(비닐하우스 面積)가 평균 1,000 坪씩으로, 城南市 福井洞의 150 坪内外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經濟規模가 그만큼 크고, 賃借農地의 賃借期間도 통상 3~4 年으로 安定的인 財力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地價는 1989. 8 月 現在 논인 경우 성남시 북정동은 30 萬원 / 坪인데 비해 元興 1 리는 5~10 萬원 / 坪(위치에 따른 기복이 심한 편임), 밭의 경우는 성남시 북정동이 100 萬원 / 坪인데 비해서 元興 1 리는 15~20 萬원 / 坪으로 아직까지는 비싼 편이 아니다.

셋째, 元興 1 리는 관엽식물을 主力作目으로 하고 있으며, 관엽식물은 고무나무, 종려, 소철, 브로메리아, 드라세나 등 현재 商業的 栽培가 行해지고 있는 種類가 70 여가지를 헤아릴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관엽식물의 園地化는 그 規模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지 않으면 어렵다. 따라서 元興 1 리는 統一路 주변지역의 다른 花卉農家들과 함께 廣範圍한 園地內에 위치함으로써, 배후가 취약한 성남시 북정동에 비해서 그의 成長

可能性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花卉産業의 展望이, 전반적인 所得水準의 向上과 生活環境의 高級化 및 快適化 趨勢를 바탕으로, 여타의 農作物에 비해서 밝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한편 현재 3戶의 原住農家에 의해서 補完作目으로 飼育되고 있는 50頭 정도의 젖소는 우리의 전반적인 酪農産業의 展望이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닐 뿐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公害問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公害防止施設에 대한 추가적인 投資가 커다란 부담으로 作用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의 成長可能性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 高陽郡 元堂邑 食寺 2里

② 地理的 位置와 營農條件의 變化

元堂邑 食寺 2里는 元堂邑 北西쪽에 위치함으로써 앞에서 살펴 본 元興 1里와는 元堂邑의 中心地이고 邑所在地인 元堂里를 사이에 두고 상호 對稱된 位置에 있다. 따라서 食寺 2里는 서울市廳을 起點으로 16 km 거리의 西北쪽에 위치함으로써 元興 1里보다는 약 4 km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또한 서울과의 交通距離도 가장 운행횟수가 많은 시내버스 路線들이 元堂里를 起點으로 하고 있으나 食寺 2里는 그보다 더 떨어져 있어서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따라서 食寺 2里는 앞에서 살펴 본 元興 1里보다도 農村으로서의 印像이 더 짙다.

우선 人口와 家口를 살펴보면, 1988年末 기준으로 모두 296家口에 1,118名의 人口가 살고 있으며(元興 1里: 392戶, 1,472名), 그중 農家는 83戶로 全體家口數의 28%(元興 1里: 61戶, 15.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農耕地 面積은 모두 66ha(元興 1里: 59ha)로서, 그중 논이 34ha로 51.5%(元興 1里: 38ha, 64.4%), 밭이 32ha로 48.5%(元興 1里: 21ha, 35.6%)로 논밭이 각각 1:1정도이다. 그러나 이를 農家次元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논농사 2,000坪內外+밭농사 400

坪内外의 水準으로, 농농사를 主力作目으로 하고, 밭농사는 극히 일부농가의 소규모 비닐하우스(100坪 내외)에 의한 껌일의 商業的栽培를 제외하고는 元興 1里와 같이 주로 自家消費를 위주로 행해지고 있다. 즉 고추, 마늘, 참깨, 콩, 팥 등 매우 다양한 作目들이 小量씩 栽培되는 半自給的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農農사에 있어서는 최고 8,000坪을 짓는 농가도 있고, 밭농사에 있어서는 최고 3,000坪을 짓는 농가가 있으며, 農農사에 있어서는 不在地主에 의한 出入耕作도 7~8명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한편 地價에 있어서는 建築이 가능한 밭의 경우는 坪當 30萬원 수준으로 元興 1里의 15~20萬원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고, 논인 경우는 絕對農地가 坪當 4~6萬원, 相對農地가 15萬원 수준으로, 위치에 따라서 5~10萬원 수준인 元興 1里에 비해서 싼 곳은 더 싸고, 비싼 곳은 더 비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土地去來는 元興 1里와 비슷한 편으로 '85/'86년에 약간 활발해진 듯 했으나 그후부터는 매우 한산한 편이다.

食寺 2里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접해 있는 食寺 5里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환자 재활농장인 「고운농장」이 1982년부터 年次的으로 工團地域化하기 시작했고, 1985년부터 家具工場에서부터 신발가공공장에 이르기까지의 매우 다양한 零細企業들이 本格的으로 入住하기 시작하여, 1989年 10月 現在 400餘 業體가 稼動中으로, 入住가 일단락됨으로써 이 지역 일대의 農外就業機會가 크게 넓어졌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을 뿐이다.

②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食寺 5里의 「고운農場」은 아직까지도 양계장이 그대로 運營되고 있는 하지만, 사실상 「고운工業團地」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다양한 製品을 製造·加工하는 零細業體들이 모인 複合零細工團의 性格을 띄고 있다. 따라서 이 工團은 景氣에 따라서 다소 기복이 심한 편이고, 대부분을 日傭職으로 充當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으나, 통상

적으로 現地人 3,000명 정도의 雇傭效果가 있는 것으로 官廳기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비록 食寺 5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食寺 2리의 全體人口가 1,118名(1988. 12末)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食寺 2리의 농업과 농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食寺 5리의 「고운工業團地」는 기존의 나환자 재활농장인 「고운農場」이 스스로 변모한 것으로써, 土地를 受容하고 中小企業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의 官主導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農地가 轉用되고 地價가 오르는 등의 변화는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高陽郡의 이 일대가 地理的 位置나 地形的 特徵 등으로 인해서 옛부터 매우 양호한 農業地域이었기 때문에 農家들의 농업에 대한 保守的 性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것도 이 지역의 急激한 變化를 억제해온 要因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1988年 12月末 現在의 83개 농가는, 1985년에 敎職으로부터 轉職·移住해온 1個 農家를 제외한 82個 農家가 原住農家로서, 農家の 流出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83戶의 農家 중에서 10여 농가는 오직 농사만을 짓고 있고, 70여 농가들도 家口員 중 일부가 高운工業團地內의 工場이나, 서울에 있는 職場에 취업함으로써 農外所得을 추가하고 있으나 농사에 主力하고 있다.

따라서 農村으로서의 食寺 2리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内部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는 農家 家口員 중 일부의 農外就業으로 인한 農外所得이 추가됨으로써 農事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兼業農 또는 副業農化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主力作目인 논농사에 대한 機械化率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으로써 전체 논면적의 95%가 機械移秧됨으로 마을 전체의 모내기가 移秧機 5대에 의해서 7~10日이내에 끝날 수 있다. 또한 收穫은 비록 食寺 2리에 한대의 콤바인도 없으나, 인근지역의 充分한 콤바인에 의해서 전체 논면적의 60%가 수확되고 있다. 그러나 밭농사에 있어서는 機械化가 여의치 못하고, 그 규모면에서도 통상적으로 농가당 400坪 內外

식으로 주로 自家需要充當에 주력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食寺 2 리의 農業과 農家の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옛부터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産業인 농농사는 상당한 機械化가 推進되어 왔을 뿐, 農農사 중심의 典型的인 農村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접해 있는 食寺 5 리에 「고운工業團地」가 形成됨으로써 農外 就業이 가능해지고, 農外所得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한편으로는 農農사의 機械化가 추진될 수 있는 農家財政이 뒷받침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農家들의 生活水準과 生活方式이 예를 들면 서울이나 高雲公業단지 등으로 出退勤하는 家口員, 登교하는 子女 등 公휴일이 지켜지고 그에 알맞는 생활 리듬이 定着되는 등의 都市化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를 綜合해보면, 食寺 2 리는 外形的으로는 典型的인 農農사 중심의 農村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內的으로는 農外所得에 의한 農家所得의 증가가 日常的인 農家財政需要를 비교적 充分히 뒷받침해주는 財政的으로 安定된 農村으로 發展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③ 變化의 特徵과 要因

따라서 食寺 2 리의 농업과 농가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무엇보다도 먼저 일반적인 都市近郊農村地域의 농업·농가들이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變化, 즉 移農이나 脫農, 農地所有의 再編成과 不在地主化 등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있거나 극히 미미하다는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農農사의 機械化, 地價의 上昇 등과 같이 外形的인 現象은 같지만, 그 要因이 다른 부분도 있고, 앞에서 살펴 본 元興 1 리에서와 똑같은 不在地主의 出入耕作과 같이 同一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典型的인 農家 중심의 農村마을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內的으로는 상당한 變化를 했다는 점에서 볼 때, 대략 다음과 같은 4 가지 特徵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都市化나 工業團地의 造成 등으로 인한 土地去來의 活性化, 地價의 上昇, 土地所有의 再編成 및 農家の 移動으로 인한 農家の 再編成 등이 食寺 2 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①이곳이 西部戰線과 매우 가까운 곳이어서 開發이 지연되었다는 地理的인 位置와, ② 400 여 業體가 入住·稼動中에 있는 「고운工業團地」가 있으나 이는 기존의 「고운農場」이 탈바꿈한 것에 불과하여 地價나 土地去來를 자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③ 이들 入住業體들이 많은 高級技術人力보다는 單純人力에 대한 需要가 더 큰, 단순한 下請加工業體들이어서 現地人에 대한 雇傭效果가 큰 편이며, ④ 이로서 農家들은 農外所得을 추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原住農家들은 한편으로는 農家에 대한 機械化를 추진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農土를 賣却하지 않아도 될만한 財政的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土地去來가 활발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農家所得이 農家の 財政需要를 감당할 수 있을 경우, 農地價格이 上昇하더라도 대대로 물려내려온 農地에 대한 賣却이나 去末가 활발해지지 않고 이에 따라 비록 農業所得은 낮아지더라도, 農事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展望을 가능케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農家 自體의 後繼者 問題나 또는 一山里에서와 같은 農村마을 自體의 都市化 등은 예외가 될 것이다.

둘째, 原住農家들의 農業所得 增大를 위한 努力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벼농사 이외의 畜産, 果樹, 花卉, 施設菜蔬 등과 같은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的 導入이나 擴散이 여타의 都市近郊地域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食寺 2 리는 아직까지도 典型的인 農家 위주의 農村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발농사는 아직도 自家需要의 充當을 위주로 한 半自給的 내지는 自給的 形態에 머물고 있다. 또한 全國的인 花卉團地중 하나

인 統一路 주변과 매우 가깝고, 1985년에 그동안의 敎職生活를 정리하고 農事를 위해서 移住해온 유일한 流入農家가 처음에는 施設菜蔬를 試圖했었으나 '87/'88년부터는 觀葉식물의 일종인 觀音죽을 專門으로 하고 있지만, 인근 농가들에게는 전혀 과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農家所得을 農外所得이 상당수준까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이러한 所得作目的 導入이 추가적인 勞動力을 必要로 하는 반면에 農外所得에 비해서 安定的인 所得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가면서 不安定한 收益性에 매달리지 않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農業所得의 長期的인 增大를 위해서 農地規模가 擴大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農家間의 農地去來가 거의 없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셋째, 勞賃水準이 다른 首都圈 地域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특히 「고운工業團地」로 인해서 상당한 勞動力 需要가 있고, 서울까지의 交通距離가 1시간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모내기, 벼베기 등에서는 15,000 원+中食+簡食 / 1人 1日, 일반적인 營農作業에 있어서는 簡食을 제외한 정도로, 앞에서 살펴 본 元興 1리와는 같은 수준이지만, 南楊州郡 和道面 車山 2리나 城南市 福井洞의 20,000 원+中食+簡食 / 1人 1일에 비해서 25%가량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발농사가 半自給的이기 때문에 自家勞動力에 의존하고 있고, 논농사는 95%가 機械移秧, 60%가 콤바인 收穫에 의존하고 있어서 農業勞動力에 대한 需要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農機械의 보급이 활발해져서 賃作業料의 수준이 이앙기와 콤바인이 공히 200坪當 12,000 원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趨勢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논농사에 대한 機械化가 農外所得에 의한 農家財力の 向上을 통해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논농사의 機械化는 남양주군 화도면의 차산 2리나 城南市 福井洞에서도 추진되었으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상당한 差異가 있다.

즉 남양주군 화도면 車山 2리는 勞賃의 上昇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離村으로 인한 勞動力의 부족과 다른 한편으로는 酪農所得, 즉 새로

은 所得作目的 導入에 의한 農業所得의 증가를 통한 農家財政의 여유를 바탕으로 했다. 또한 城南市 福井洞은 充分한 賃借畝과 賃借를 통한 耕作規模, 擴大가 용이해짐으로써 뒤늦게 추진되었었다. 그러나 食寺 2리는 이들 지역과는 달리, 農外所得의 增加로 인한 農家財力의 向上과 農外就業으로 인한 農業人力의 相對的인 減少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日本의 農業機械化 및 兼業農化와 유사한 過程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食寺 2리의 논농사기계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投資負擔이 크지 않은 移秧機에 있어서는 食寺 2리의 農家들이 스스로 購入함으로써 自體的인 機械化를 추진해온 반면, 高價品으로 投資負擔이 큰 콤바인에 있어서는 機械收穫面積이 60%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農家들이 가지고 있는 콤바인에 의한 賃作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는 우선 콤바인이 高價의 農機械일 뿐 아니라, 최고 8,000 坪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 1 戶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2,000 평 내외의 논을 耕作하는 小規模畝作農家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一山(畝面積比率 80%), 知道邑(畝面積比率 78%) 등의 주변지역이 파주군에 있는 풍부한 水資源을 가진 임진수리사업소에 의해서 安定的인 水利施設이 잘 갖추어진 논농사 지역으로서, 일찍부터 많은 農機械들이 보급되어 있어서 賃作業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不在地主들에 의한 出入營農이 논농사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元興 1리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④ 農業·農家の發展展望

食寺 2리의 發展과 변화는 무엇보다도 ① 인접해 있는 元堂邑 所在地인 元堂里의 市街地化, ② 一山邑의 新都市建設, 그리고 ③ 精確한 通過地點이 아직은 確定되어 있지 않으나 基本設計가 의뢰되어 있는 北部循環道路의 建設에 의해서 크게 左右될 것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異議가 없을 것이다.

이는 곧 현재의 시점에서 食寺 2리의 농업과 농가에 대한 中長期的인 發展 展望이 제시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北部循環道路와 같은 폭이 넓은 都市高速化 道路는 土地의 受用뿐 아니라 農耕地가 도로의 양쪽으로 分割되는 등의, 農家立場에서는 거의 決定的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要因이 되며, 이러한 道路가 食寺 2리를 어떻게 통과하게 될 것인지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可視的으로 進行中에 있는 元堂邑의 市街地化와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一山 新都市建設 등 만을 전제로 食寺 2리의 농업과 농가의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을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制約下에서 食寺 2리의 變化는 스스로의 變化, 즉 能動的인 變化라기 보다는 주변지역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 즉 受動的인 變化를 하게 될 것이다. 우선 地價는 上昇하겠지만, 食寺 2리에 의해서 主導된다고 보다는 一山邑이나 元堂里의 地價上昇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農地去來는 별로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① 農家들의 財政形便이 農外就業으로 매우 진실한 편이고, ② 農外所得의 增加로 農地所有에 대한 의미가 農業收益性 보다는 所有 그 자체가 더 커질 것이며, ③ 이러한 兼業化가 진행중인 농가에 있어서의 後繼者問題는 일반적으로 專業農에 비해서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土地去來가 활발해지고, 地價가 上昇하고, 農地의 流動性이 높아진다고 보다는, 地價는 上昇할 수 있겠으나 팔려는 賣物의 不足으로 去來가 뒷받침되지 못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農家들의 農地規模擴大는 용이해지지 못하는 한편 兼業農化하게 되고, 이로써 農家들의 努力은 農業粗收入을 向上시키는 多收穫이나 높은 價格의 實現에 대해서라기 보다는 經營費를 절감하려는 方向에 모아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正常的으로 農事를 짓는 兼業農에 있어서는 물론이려니와, 農業所得에 관계없이 農地를 財産增殖, 또는 老後對策의 일환으로 所有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賃貸收入만을 추구하지 않는 한 農地로부터의 所得을 向上시키고자 하게 된다. 또한 農業所得은 農業粗收入에서 經營費를 빼고 난 것으로서, 農業粗收入은 높을수록, 그리고 經營費는 낮을수록 많아진다. 이는 곧 農業所得의 向上을 위한 農家들의 努力이 두가 방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한편으로는 農業粗收入을 높이기 위한 多收穫과 높은 價格의 實現에 대한 努力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經營費를 줄이려는 努力이 그것이다. 그러나 多收穫은 통상적으로 高度의 技術과 集約的인 經營을 요구하며, 集約的인 經營은 일반적으로 經營費의 上昇을 동반하게 되며, 高度의 技術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兼業農이 專業農보다 못하고, 副業農은 兼業農만 못하고, 非農家は 副業農만 못하다. 또한 農産物의 價格은 個別農家들의 立場에서 主導權을 가지고 노력하여 얻는다고 보다는, 하나의 주어진 與件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각 농가의 努力으로 農産物 價格을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農業所得 보다는 農地를 늘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農地所有者는 물론, 農家財力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兼業農에서조차도, 農事가 다소 粗放的이 되더라도 粗收入을 올리려는 쪽 보다는 經營費를 줄이려는 쪽으로 더 努力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食寺 2리의 논농사가 앞으로 점차 粗放的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共同모내기, 共同收穫과 같은 부분적인 共同作業, 그리고 共同生産으로 發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食寺 2리가 앞으로 農業地域으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장차 一山新都市와 같이 都市化, 또는 一山新都市의 背後都市로 發展하느냐에 따라서 粗放化나, 共同生産이냐를 左右하게 될 것이다. 다만 食寺 2리의 現狀態나 지금까지의 變化추세로 미루어 볼 때, 당분간은 부분적인 共同作業의 형태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耕地面積의 절반에 가까운 밭농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自家需要 위주의 반자급적 형태가 비닐하우스에 의한 施設菜蔬와 같은 集約的인 營農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이는 制限된 農家勞

動力이 발농사보다 有利한 農外就業에 우선적으로 利用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발농사의 機械化가 당분간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一山 新都市의 建設과 元堂 里의 市街地化로 인한 地價의 上昇이 발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去來가 활발해질 가능성은 매우 크며, 이 경우 발의 不在地主化 → 賃貸 → 零細農家の 流入으로 연결되어, 예를 들면 盆唐新都市 建設地域 內에 있는 城南市 盆唐洞, 金谷洞, 구미동 일대에 集團化되어 있는 花卉農家들이 비록 일부에 지나지 않더라도 기존의 統一路 花卉團地와 매우 가까운 이곳 食寺 2리나 그 주변지역으로 移住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食寺 2리의 농업과 농가는 전반적으로 農外所得에 의한 農家財政의 向上으로, 農地의 流動性은 억제되는 반면, 논농사를 중심으로 한 兼業農의 형태를 상당기간 동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논농사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共同作業도 상당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共同生産으로까지 發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농사에 있어서의 共同作業 → 共同生産은 制限된 農家勞動力과 발농사 機械化의 어려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地價의 오름세 추세로 인해서 여의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4. 脫農業化 地域

가. 安養市 坪村洞

① 地理的 位置와 營農條件의 變化

安養市 坪村洞은 서울시 청을 기점으로 20 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사당동-과천시-시흥을 잇는 47번 國道가 坪村洞 東側을, 그리고 서울의 가리봉동-시흥동-안양-시흥-수원으로 이어지는 1번 國道

가 坪村洞의 西側을 각각 통과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서울-수원간의 지하철 1호선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서울시청까지의 交通距離는 1시간 내에 불과하다.

安養市는 1973년에 市로 昇格된 이래 기존의 市街地域인 安養洞(1, 2, 4, 5, 6洞)과 석수1, 2洞을 중심으로 꾸준히 都市化되어 왔으며, 1989년 12월 부터는 坪村洞, 飛山洞, 虎溪洞 일원의 150여만명을 '92년 까지 人口 17만명을 受容하는 準直割 性格의 新都市 建設을 목표로 土地開發 公社에 의해서 土木工事を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이는 곧 이 지역에서의 農事가 금년 12월을 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②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坪村洞은 예로부터 水利施設이 잘 갖추어져 있고 集團化 되어 있는 넓은 들판을 가진 傳統的인 農家지역이었다. 그러나 1973年 安養이 市로 昇格되면서 土地去來가 활발해지고 땅값도 크게 오르기 시작했고, 不在地主의 수도 갈수록 증가해 갔다. 특히 坪村地區 宅地開發事業計劃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1985/86년에는, 農家만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344개 農家に 110ha의 논 중에서 在村農家は 99戶(29%)에 39ha(36%), 安養市內 居住農家は 116戶(34%)에 41ha(37%), 그리고 安養市外 居住者로써 순수한 不在地主로 간주할 수 있는 農家は 126戶(37%)에 30ha(27%)에 이르렀었다 <表 3-9>.

表 3-9 奮作農家 및 논面積의 構成(坪村洞, 1985. 12)

區 分	農 家 戶 數	耕 作 面 積
在 村 農 家	99戶 (29%)	39ha (36%)
安養市內 居 住	116戶 (34%)	41ha (37%)
安養市外 居 住	126戶 (37%)	30ha (27%)
計	341戶 (100%)	110ha (100%)

물론 이러한 숫자가 公式的으로 調査된 것이 아니라, 農村指導業을 담당했던 실무자('83 ~ '87 까지)가 業務參考를 위해서 파악해 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公認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추세를 파악하는 자료로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85年 당시의 99戶의 在村農家들은, 그중 약 30여戶가 대대로 坪村洞에서 태어나 자라온 原住農家들로서, 이들은 대부분 '86 / '87년을 전후로 坪村洞 農地를 賣却하여 평택, 안성, 화성, 시흥, 여주, 이천 등지에 坪村洞에서 가지고 있던 논 3 ~ 5倍 面積을 購入하여 現地農家に 賃貸하고, 住居는 坪村洞에 그대로 머물면서 地上에 있는 각종 가건물에까지 房을 만들어 賃房으로 活用하고, 장차는 自身들의 垆地위에 商業建物 등을 지어, 賃貸를 業으로 하고자 하고 있는 實情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原住農家の 대부분은 타지역에 있어서의 不在地主로 변모함으로써, 사실상의 脫農化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原住農家 중에는 '89년 9월 현재까지 自作地 4,000坪의 논을 직접 耕作하는 농가(최대규모)를 비롯하여, 坪村洞 所在의 논중 일부만을 賣却하고, 나머지 논면적과 賃借를 추가하는 自作+賃借 형태의 논농사를 계속하면서 평택, 여주 등지에 대신 購入해 둔 논은 賃借해 주고 있는 農家들도 30여호에 이른다.

또한 30頭의 젓소만을 飼育하는 專門農家(최대규모)를 비롯하여, 30여 농가가 畜作+젓소(10두내외)의 複合經營을 계속하고 있기도 하다.

自家所有+賃借를 바탕으로 논농사를 계속하고 있는 30여 농가들은, 管外人들이 이 지역의 農地를 買入할 때 매매계약과 동시에 복덕방을 통해서 代理耕作者 또는 賃借農家를 알선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경로를 통해서 賃借地를 確保하고 있다.

한편 116戶에 이르는 安養市內 居住의 不在地主들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1,000 ~ 1,500坪 정도의 出入耕作者들로서, 農家로 分類하기 어렵다. 또한 126戶에 달하는 安養市外 居住者들은 극히 일부가 出入耕作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賃貸, 또는 代理耕作(委託耕作)에 맡기고

있다. 이들 安養市外 居住者들은 주로 外地에서 流入되어온 零細家口들에게 賃貸, 또는 代理耕作을 시키는 바 그 비중이 70~80%이고, 原住農家들에게 賃貸해 주는 경우는 20~30% 정도이다. 이는 주로 農地去來를 仲介해 준 복덕방에 의해서 알선된다.

한편 外地로부터의 零細家口의 流入은 1970年代 중반이후 農村을 떠나 서울로 옮겨온 離農家口들 중에서, 서울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家口들이, 고향으로 되돌아 갈수도 서울에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서 零農사의 代理耕作이나 賃借農으로의 需要가 생기기 시작한 坪村洞으로 轉入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는 최고 10,000坪의 零農사를 짓는 代理耕作者도 있었던 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代理耕作이란 營農費를 地主가 負擔하는 것 이외에는 賃借와 동일하다. 그러나 傭賃을 받고 農사를 지어주는, 또는 일반적인 企業經營에서의 「雇傭된 經營者」로서의 代理經營者와는 달리, 收穫後에 一定比率 혹은 一定量을 賃가로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代理耕作者란 營農費用을 地主가 부담하는 賃借農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農村出身의 零細家口들의 坪村洞에로의 流入은 坪村地區 宅地開發事業이 거론되기 시작한 '85/'86년에 이미 原住農家の 數를 앞서게 되었으며, 이들 중 다소나마 資金力이 있었던 일부 家口들은 飼料工場과의 契約 등을 통해서 비닐하우스와 같은 家畜물을 이용한 養豚을 시작하기도 했었고('87 行政統計: 107개 養豚農家, 飼育頭數 4,186頭), 대부분의 資金力이 없는 家口들은 가능한 한 많은 農地를 代理耕作하기 위해서 복덕방 출입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零細流入農家들은 坪村地區 宅地開發事業에 대한 논의가 점차 본격화되면서 土地所有者에게는 土地補償과 아파트 入住權, 賃入者에 대한 賃貸住宅 入住權, 賃借農에 대한 營農補償 등에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더욱 증가하여 1989年 10月 현재 약 5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行政機關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坪村洞의 零農사는 機械化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 이는 坪村洞이 장차 農業地域이 아닌 都市地域으로 바뀌게 될 것이 너

무 자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農家들이 投資하지 않았으며, 다만 '88년에 경기도가 추진한 「農機械 보내기 운동」에 힘입어 安養市 全體에 배정된 20대의 移秧機 중 4대가 耕作規模가 큰 4개 農家에 각각 배정되었을 뿐이다.

밭농사에 있어서는 1986年 까지 그面積이 61 ha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1/3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많은 부분이 宅地로 轉用되었고, 宅地는 아니더라도 住居用(貰房用), 또는 畜舍用 비닐하우스가 設置되어 있고, 일부에서 대파가 商業的으로 栽培되기도 하고, 또는 自家需要의 充當을 위한 텃밭 정도로 利用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1989年 10月 현재 坪村洞에는 4개의 花卉農家(장미절화: 1戶 꽃꽂이 소재: 3戶)가 賃借地를 바탕으로 生産活動을 하고 있으나, 이들 農家는 1984/1985年에 流入되왔었으며, 原住農家들에게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大規模 團地로 發展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坪村洞은 금년 農事를 끝으로 農業이 마감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상에서의 變化過程을 要約하자면, <表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3年에 安養邑에서 安養市로 昇格되는 것을 계기로 變化를 맞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農地 이외의 用途로 轉用이 가능한 土地들을 중심으로 土地去來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그후 서울-수원間의 지하철이 開統되고('74.8), '80年代에 들어서면서는 果川이 市로 昇格되고 行政政府의 일부가 政府綜合廳舍로 移轉되면서 土地去來의 對象도 絕對農地로 開發이 制限되어 있는 논까지 擴大되어 갔고, 坪村地區 宅地開發事業이 거론되기 시작한 '85/'86年을 고비로 土地所有의 再編成이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土地所有의 再編成은 原住農家の 流出 또는 脫農과 零細都市家口の 流入을 통한 地域住民의 再編成을 동반한 바, 原住農家들은 평택, 안성, 여주, 이천 등지에 農土를 대신 마련하여 現地農家들에게 賃貸해 주고, 스스로는 坪村洞에 계속 居住하면서 長期的으로는 宅地開發에 따른 地價의 추가적인 上昇을 기대하고, 단기적으로는 늘어나는 流入人口

表 3-10 坪村洞의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1960年代末	1970年代 ~ 1988	1989. 8. 現在
○ 傳統的인 畚作地域	○ 土地所有의 再編成('85/'86 : 절정기) ○ 原住農家(80여戶)의 兼·副業農化 → 脫農 및 不在地主化(평택, 안성, 시흥, 여주, 이천 등지에 3~5배의 畚面積 買入 및 現地農家に 賃貸) ※ 初期의 賃房·轉賃收入에 의한 兼·副業農化와 後期의 脫農·轉業 ○ 農村出身의 都市零細家口의 流入과 이로 인한 代理耕作등과 不在地主에 의한 出入耕作의 混在	○ 農事의 마감이 進行中임. ※ 補償에 대한 기대(土地: 아파트入住, 賃入者: 임대주택入住, 營農補償)에 의한 零細家口의 流入

의 住居需要增大에 따른 賃房 및 轉賃값의 上昇이라는 有利한 變化를 그대로 受容함으로써, 한편으로는 脫農 또는 非農業分野로의 轉業(不動產 賃貸業)을 해왔다.

한편 坪村洞內의 不在地主화된 農土는 出入耕作, 代理耕作, 賃貸耕作 등 다양한 形態의 過度期的 現象이 混在하게 한 背景이 되었으나, 이러한 變化들은 '83년경부터 本格化되기 시작해서 1986年을 고비로 절정에 달했었으며, '89年 12月의 着工豫定이 발표된 '89年 8月을 계기로 일단락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坪村地區 新都市開發에 따른 補償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零細都市家口의 流入은 계속되고 있다.

③ 變化의 特徵과 要因

이상에서와 같은 坪村洞의 農業과 農家の 變化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農業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소위 마지막 마감단계에 왔다는 것이다. 17年前인 1973년에 安養邑이 安養市로 昇格될 당시만 해도 水

利施設이 잘 갖추어진, 상당한 규모의 集團化된 들판을 가진 농농사지역이었던 坪村洞이 人口 17 만명을 수용하는 準直割 性格의 新都市로 開發될 예정으로 있어서 農業과 農家가 더 이상 存續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이와 비슷한 狀況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큰 首都圈地域에 있어서의 農業과 農家の 장차 모습을 앞서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住宅 60萬戶의 建設을 앞두고 있는 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安養市 坪村洞의 開發事業이 安養市의 必要나 해당 地域住民의 意思에 充實했다기 보다는, 서울特別市 및 首都圈의 必要에 따라서 左右됐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傳統的인 농농사 지역이었던 安養市 坪村洞의 新都市 建設 뿐 아니라, 仁川市 富平의 工業團地化, 果川市의 行政都市化, 漢江上流地域의 自然保護 및 上水源 保護區域化 등과 같이 中央集權制 下에서의 서울의 팽창에 따른 일방적인 開發需要를 서울近郊地域이 감당해야만 했던 사실들에서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한 「農機械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坪村洞의 宅地開發事業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됨으로써 土地所有의 再編成이 거의 끝난 시기인 1988년 봄에 4대의 移秧機가 보급됨으로써 耐久年數 5~6년의 1/3인 2年밖에는 使用되지 못하게 된 것은 서울市와 경기도, 또는 안양시의 利害가 똑같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고 하겠다.

둘째, 80여戶의 原住農家들이 모두 不在地主化 및 脫農家化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城南市 福井洞에 있어서는 비록 소수이지만, 상당수의 原住農家들이 畓作地域으로 規模를 늘려 移住함으로써 本格的인 畓作農家로 定着한데 반해서, 安養市 坪村洞의 原住農家들은 비록 先代로부터의 農土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지역에 農土를 대신 마련하기는 했지만, 農事를 직접 짓지 않음으로써 脫農家化, 不在地主化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지역의 이러한 差異를 명확히 區分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安養市가 '73

년에, 城南市가 '72년에 각각 市로 승격되었고, 도시의 규모와 成長面에서 安養市는 1975년을 기준하면, 人口 13.5만명, 面積 58㎞²의 都市에서 12년이 지난 1987년에는 면적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人口는 206.7%가 증가한 41.4만명의 도시로 成長했으며, 城南市는 같은 기간 중, 人口 27.2만명, 面積 142㎞²의 都市에서, 면적은 안양시와 같이 거의 변화가 없으나, 人口는 80.5%가 증가한 49.2만명의 都市로 成長함으로써, 안양시가 面積이나 人口面에서는 적지만, 人口의 增加率에 있어서는 城南市의 2.5배에 달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城南市 福井洞의 原住農家들은 '84/'85년을 頂點으로 農地賣却과 代土買入이 행해짐으로써 1~2년의 時差가 있기는 하지만, 이 時差만으로는 두 지역이 不在地主化 및 脫農家化和 畚作擴大移住·定着의 差異를 說明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번째 特徵으로는 過度期的 現象이 出入耕作, 代理耕作, 賃借農,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대과의 商業的 栽培나 花卉農家の 流入, 酪農의 補完作目 導入 등 매우 다양한 形態가 混在했으며, 특히 여타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代理耕作形態가 行해졌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代理耕作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不在地主化한 農土에 대한 原住農家들의 賃借意慾이 充分히 강하지 못한 반면, 公關地稅 등으로 農土를 늘릴 수 없는 不在地主들의 供給者的 立場과, 과거에 農村에서 살다가 서울로 移住했었으나, 서울에서 다시 번두리 地域으로 流入된 零細家口들의 農事라는 職業을 잃게 됨에 따른 補償, 즉 營農補償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긍정적인 설득력을 얻어감에 따른 需要者的 立場이 함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두가지 立場을 주선해 주는 복덕방이 去來의 成事を 위해서 이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代理耕作이 아직까지는 그 土地가 開發될 때까지 限時的으로 行해지는 過度期的인 現象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고 資本主義的 競爭原理가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면, 限時的이 아닌 것으로 發展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그것이 비록 限時的인 것으로 머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住宅 60

萬戶 建設을 추진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해서도 안될 것이다.

④ 農業·農家の 發展展望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安養市 坪村洞은 今年末 안에 인접해 있는 飛山洞, 虎溪洞과 함께 人口 17 만명을 수용하는 150 만명 규모의 準直轄市 性格의 新都市 建設을 着工할 예정으로 있어서 農業·農家の 展望을 試圖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다만 화성, 평택, 여주 등지에 農地를 確保해둔 農家들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現地農家들에게 農地를 賃貸해 주는, 소위 새로운 不在地主 階層으로 상당기간동안 남게 될 것이다. 이는 農業의 장래에 대한 일반적인 회의적 視覺과 營農後繼世代의 農家內 斷切이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改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나. 仁川直轄市 北區 富平 4 洞

① 地理的 位置와 營農與件 變化

仁川直轄市 北區 富平 4 洞은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25 km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市界인 九老區 航洞과는 富川市를 사이에 두고 6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나, 그보다는 富平 4 洞이 仁川市 北區의 中心地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富平 4 洞은 본래 김포평야의 외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蘇來, 始興, 金浦郡 柱陽面('89.1.1. 부로 仁川直轄市 地區에 編入됨) 등과 함께 20 萬坪에 가까운 논을 가진 傳統的인 畝作地域이었으나, 1960 年代 후반부터 富平工業團地가 造成되면서 그 背後地域으로서의 機能을 要求받는 地域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었다.

특히 1968. 1. 1 부로 仁川市가 中區, 東區, 西區, 北區의 4 개 區를 갖는 直轄市가 되고, 富平工團이 점차 正常稼動되면서 人口가 增加, 都市化가 進行되었고, 서울~인천間的 전철이 富平 4 洞과 접해 있는 富

平 5 洞에 富平驛을 設置함으로써(1974. 8) 富平 4 洞은 仁川市 北區의 中心地로 發展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꾸준한 都市化 추세에 따라서 1985 년에는 富平 4 洞중 市街地 쪽의 一部地域이, 그리고 1987 년에는 나머지 모든 富平 4 洞이 宅地造成 事業을 위해서 土地開發公社에 의한 土地受用이 마무리됨으로써, 1987 年 이후부터는 農事가 전무한 實情이다. 다만, 수용은 되었으나 土木工事 조차도 '89.10. 現在 始作되지 않고 있어서 일부 기존의 原住農家들에 의해서 農事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을 뿐이다. 이외에 현재까지도 農事를 계속하고 있는 原住農家は 6 戶가 있으나, 富平 4 洞이 아닌 인근지역에 논을 가지고 있는 60 세 이상의 高齡者들이다.

②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富平 4 洞은 1960 年代 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畝作地域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典型的인 農事 地域이었으나, 第 1 次 經濟開發 5 個年 計劃이 進行되면서 富平工業團地가 들어서기 시작함으로써 變化가 일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 여년이 지난 1987 년부터는 農事가 자취를 감춘 지역이라고 하겠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初期段階라고 할 수 있는 1960 年代 중반에는 富平工業團地의 造成計劃이 구체화 됨으로써, 비록 정도의 差異는 있겠으나 오늘날과 비슷하게 土地去末가 활발해지고 不在地主가 생기는 등의 소위 土地所有의 再編成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土地所有의 再編成은 1985 年の 土地開發公社에 의한 1 次 土地受容이 행해질 때까지 20 년이란 긴 세월을 거쳐서 進行되었다. 따라서 여타의 首都圈 地域에서와는 달리 극심한 投機性向을 보이지는 않았었다.

第 2 期라고 할 수 있는 '70 年代 중반에는 不在地主化한 農地를 賃借하여 耕作하고자 10 여 家口가 外地로부터 流入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原住農家들은 入住工場의 숫자가 增加하고, 인구가 流入됨에 따라서 農家 스스로에 대한 農外就業機會가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貰房이나 轉貰需要가 늘어남에 따라서 農外所得比重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農家들은 점차 兼·副業農化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를 農家 內部에서 살펴보면, 젊은 층인 子女世代들은 農外就業을, 家口主人 經營主는 기존의 農事와 貰房 및 轉貰收入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70年代 중반부터는 전철의 開通을('74.8.15) 계기로 貰房 및 轉貰需要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였던 바, 한편으로는 職場을 찾아 富平工團 가까운 곳으로 移住코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이나 인천에 職場을 가졌으나, 大都市안에서의 住居費를 감당할 만큼의 財力を 미쳐 갖추지 못한 젊은 층들이 交通이 편리해지고, 집값이나 집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가 꾸준히 계속되면서 富平 4洞은 住居地域 또는 富平工團의 隣接地域으로서의 役割을 要求받게 되었고, 이러한 要求는 갈수록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어떤 方案이 마련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喪失해지면서 農事는 점차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즉, 第3期라고 할 수 있는 1980年을 전후해서 부터는 農事가 매우 消極的 내지는 副隨的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1980年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는 畚作機械化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8만여坪의 農事가 행해지고 있던 富平 4洞에는 단 2대의 耕耘機가 있었던 경험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80年을 전후해서 부터는 대부분의 農家들이 논의 관배수 및 관찰을 제외한 거의 모든 營農作業, 즉 移秧, 病虫害 防除, 收穫 등의 作業을 모두 賃作業 또는 농촌일손 돕기에 의존하는 지극히 소극적인 農事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그후로도 더욱 심화되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1984年 8月末의 집중호우로 이 일대의 모든 논의 10여일 동안 침수되었었던 바, 아무런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모두 枯死했고, 枯死한 벼포기가 제거되어야 다음해에 모내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다가 결국은 농촌일손돕기 人力들이 동원되어 이를 베어낸

일이 있을 정도로 농사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이 시기의 農業用水는 이미 工場과 家庭으로부터의 폐수에 의해 매우 심각한 오염문제를 대두시켰다. 본래 富平 4 洞의 農業用水는 漢江農組로부터 공급되었으나, 농가들은 피부병등을 이유로 가능한 한 논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고, 이는 '80 年을 전후해서 加速化하기 시작한 富平 4 洞의 都市化 추세와 함께, 農事에 대한 消極的 자세를 더욱 심화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했다.

第 4 期라고 할 수 있는 1985 年의 1 次 土地受用 直前까지는 土地所有의 再編成이 마감된 단계로서, 1980 年 전후부터 加速化한 富平 4 洞의 都市化 추세를 감안할 때, 富平 4 洞의 住居地化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農事보다는 補償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커서 農士를 팔려는 農家가 전무했기 때문이다('82 年의 土地時勢 : 15,000 원 / 坪(논) → '87 年의 補償價格 : 13 만원 / 坪(논) 이었음).

따라서 1982 年을 전후해서 富平 4 洞에는 모두 80 여 原住家口가 살고 있었으나, 그중 절반가량은 이미 脫農家化 했으며, 나머지 41 個 農家가 논농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들 농가중에는 최고 7,500 坪의 논농사를 짓던 농가도 있었는데, 최저 850 坪의 논농사를 짓던 농가도 있었으나, 대체로 戶當 2,000 坪 내외의 논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대부분의 농가들은 그중 1/2 만이 自家所有農地이고, 나머지 1/2 은 不在地主들의 논을 賃貸한 것이었다. 이는 富平 4 洞이 農家經濟 調査를 위한 標本調査地區로 選定될 당시에 파악된 것이다.

賃借料의 水準은 그 당시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 바, 150 坪(1 마지기) 當 收穫量은 白米 2.5 가마(80 kg 들이)인데 비해서 賃借料는 1 가마(80 kg)가 보편적이었다. 이는 그러나, 통상 0.5 가마 정도를 營農費로, 1 가마를 賃借料로 支拂하고도 1 가마 정도가 남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왕에 논농사를 짓고 있을 뿐 아니라, 넓은 면적을 賃借하는 것이 아니라 1,000 坪 정도의 自作地 + 1,000 坪 정도의 賃借地로 賃借效果가 크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第5期라고 할 수 있는 1985年의 1次 土地受用을 전후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82年 당시의 41개 農家は 그동안 대부분에 해당되는 35개 농가가 非農業分野로 轉業함으로써 脫農家化 했으며, 6개 농가만이 농사를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 6개 농가중에는 富平4洞 뿐 아니라 인접한 부개동, 삼산동 등에도 논을 가지고 있었던 농가(4戶)도 있고, '85년과 '87년의 토지수용에서 받은 補償金 중 일부로, 그 당시 논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김포군 계양면(現 仁川市 北區 柱陽洞)에 논을 다시 매입하여 논농사(出入耕作)를 계속하고 있는 농가(2戶)도 있다. 그러나 이들 6개 소위 出入耕作農家들은 모두가 60세 이상의 老齡者들이고, 耕作規模도 2,000평 내외에 불과하다.

이들은 우선 나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先代로부터 물려받은 農土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비록 다른 지역에서라도 최소한 자신들의 代까지 는 유지해야 하겠다는 保守性向이 높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農業의 전망이 밝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子女의 經濟圈에 編入된 입장에서 自家食糧 정도만 수확할 수 있어도 그만큼은 利益이 되고, 또한 土地所有 자체가 만일에 부딪칠 수도 있는 어떤 不幸에 대한 保障手段중에서 가장 安全한 方法이라는 등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富平4洞에서 받은 補償金으로 예를 들면 김포군 계양면에 富平4洞의 10배에 가까운 논면적을 대신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坪 내외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의 나이가 많고, 子女들이 모두 非農業分野에 진출해 있어서 그들의 代를 끝으로 農事를 마감하게 될 것이다.

③ 變化의 特徵과 要因

富平4洞의 농업과 농가의 변화는 특히 本事例調査 7개 地域 중에서 가장 먼저 工業化, 都市化에 의한 變化를 경험했고, 결국 농업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것도 1988년으로써, 가장 빨랐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富平 4 洞의 變化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무엇보다도 첫째, 農家들의 積極的인 脫農業化 努力과 農事에 대한 消極的인 자세가 크게 作用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이는 富平 4 洞의 變化가 富平工業園地의 造成, 즉 工業化를 1 次的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이 찾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安養市 坪村洞이나 城南市 福井洞 등과 같이 일반적인 都市化나 首都圈의 팽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비록 工業園地가 富平 4 洞에 造成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한 지역에 造成됨으로써 農外就業, 즉 積極的 形態의 副·兼業農化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물론 京仁電鐵의 富平驛이 들어서고, 人口가 流入되고 住居需要가 증가하여 消極的 形態의 農外所得 증대노력도 병행되었다.

이는 곧 富平 4 洞의 變化가 工業園地化 + 都市化를 배경으로 한 반면 安養市 坪村洞 등은 首都圈의 팽창 + 都市化를 배경으로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特徵으로는 首都圈 農村地域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的 導入이라든지, 또는 賃貸借, 代理耕作, 出入耕作 등의 過度期的인 다양한 現象들이 나타나지 않고, 賃貸借 이외의 특별한 現象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도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낼 수는 없었다. 다만 代理耕作에 있어서는 그의 利害當事者중 하나인 外地로부터 流入된 零細家口의 流入이 있어야 하지만, 富平 4 洞은 工場就業이나 인근대도시에 職場을 가진 家口들을 중심으로 流入됨으로써 零細家口가 들어설만한 여유가 그만큼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賃貸借은 일반적으로 不在地主와 在村農家들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하지만, 富平 4 洞의 在村農村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造成된 富平工團에 就業한 젊은 층의 子女들에 의해서 상당한 農家所得을 實現하고 있었고, 老齡의 世代主들이 기존의 농사를 막연히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물론 여기에는 富平 4 洞의 農業用水가 70 年代 중반부터 이미 논농사에 부적합하고, 段收의 增大나 유지가 매우 회의적이라

는 인식이 넓게 擴散되어 있었던 것도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都市近郊型 高所得 作目の 導入이나 集約的 營農化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60年代 후반에 이미 工業團地가 造成되었고,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都市化 또는 脫農業地域化가 일찍부터 예상되었기 때문에, 農家들의 成長努力이 일찍부터 農業所得쪽 보다는 農外所得쪽으로 추구됨으로써, 農業所得의 向上을 위한 農村새마을운동이나 高所得을 위한 集約的 營農過程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副業農化의 方向을 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農業과 農家の 마감이 世代交替와 함께 進行됨으로써,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된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農家立場에서 볼 때 子女世代의 農外就業에 의한 給料收入의 점진적인 增加로 高齡化한 父母世代가 子女들의 經濟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고, 仁川直轄市의 立場에서도 극심한 土地投機나 脫農家口에 대한 특별한 부담없이 畚作 地域을 工團背後都市로 轉換시킬 수 있었다는 점은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農業·農家の 發展展望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7年의 土地受用을 끝으로 '88년부터 農業이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富平4洞의 농업과 농가의 장래를 展望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노력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도 他地域에 農土를 가지고 出入耕作을 하고 있는 6개 農家가 있으나 이들이 이미 60代의 고령이고, 특히 子女들이 非農業部門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世代交替와 함께 머지않아 非農家化 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5. 事例地域의 農業構造 變化上的 特徵

이상에 살펴본 首都圈 7개 事例地域에 있어서의 農業構造 變化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側面에서 그 特徵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變化要因으로써 農業·農家の 內的 및 外的 要因으로 區分할 수 있겠으며, 다른 하나는 變化過程의 側面에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 變化要因

事例地域에 있어서의 農業과 農家の 變化를 살펴보면, 그것이 全國的, 또는 인접지역 아니면 해당지역 스스로의 必要에 의한 것이던지에 관계없이, 일단은 해당지역에 대한 開發需要를 그 始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表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해당지역에 대한 開發需要가 기존 農地의 轉用을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土地去來가 활발해지면서 土地所有의 再編成이 진행되고, 이로 인한 脫農(非農業부문으로의 轉業, 隱退 등), 또는 農家の 流出入(他地域으로의 營農移住, 流浪農家化 등), 非農家の 流入 등으로 地域住民이 再編成됨으로써 점차 非農村化, 非農業地域化 되어가는 과정을 거의 대부분의 사례조사지역에서, 비록 程度의 차이는 있으나 경험했다.

表 3-11 事例地域의 農業·農家の 變化要因과 過程

○ 農業·農家 外的 要因(外部的 要因)

해당지역에 대한 開發需要 → 地價上昇, 農地轉用,
土地去來의 活性化(土地所有의 再編成) → 脫農,
農家の 流出入, 非農家の 流入 등에 의한 地域住民의 再編成

○ 農業·農家 內的 要因(內部的 要因)

農業의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見解 → 子女世代의 非農業
部門 進出 도모 → 營農 後繼世代의 斷切 → 兼·副業農化 →
不在地主化, 世代交替 및 脫農家化

물론 이러한 경향의 程度와 速度는 해당지역에 있어서의 農業의 比重뿐 아니라, 「開發制限地域」과 같은 制度的인 裝置에 의한 영향에 따라서 달라졌음을 볼 수 있었다. 즉 「開發制限區域」에 대부분의 面積이 포함된 仁川市 北區 防築 1洞이나, 「土地去來許可地域」으로 告示된 南楊州郡 和道面 車山 2里와 같은 地域은 都市近郊型 高所得作目이 導入되는 등 專業農化, 集約化가 進行되기도 했다.

한편 農業·農家の 內部的 要因은 增産技術의 進歩와 輸入自由化 등에 의한 低農產物價格時代의 到來, 低農產物價格時代 下에서의 農業所得 增大可能性에 대한 회의적인 展望, 地價上昇으로 인한 農家들의 規模擴大를 통한 自力成長 可能性의 惡化, 農業人으로서의 專門職業人에 대한 自他的 社會的, 相對的 소외의식 등을 바탕으로 한 「農業의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見解」, 또는 「農業의 획기적인 轉換에 대한 불가피성」이 별 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始發로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위기는 農家들 스스로가 子女들의 非農業部門에 대한 進出, 바꾸어 말하자면 脫農業人化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子女들 많이 둔 農家들 중에서도, 財力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大學까지 진학시키지 못한 子女들이 있는 경우에, 그들로 하여금 農事를 이어받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營農繼承을 위한 後繼世代의 斷切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營農主 자신들의 老齡化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子女들의 經濟圈에 흡수됨으로써 초기에는 兼業的, 또는 副業的인 農事가 계속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世代交替와 함께 農事를 마감하게 되며, 이로써 不在地主化 또는 脫農家化를 통해서 農事를 마감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農業·農家の 內部的 要因들은 해당지역에 대한 開發 需要의 有無나 水準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事例地域에서 공통적으로 存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外部的 要因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表 3-12 事例地域 農業·農家の 變化過程 및 類型

事例地域	變化過程							變化類型
	I	II	III	IV	V	VI	VII	
南楊州郡 和道面 車山 2 里			○	○				專業的 集約農化
仁川直轄市 北區 防築 1 洞		○	○		○			
城南市 福井洞	○	○	○		○			副·兼業 農化
高陽郡 元堂邑 元興 1 里	○	○	○		○			
“ “ 食寺 2 里				○	○			
安養市 坪村洞	○	○			○	○	○	脫農業化
仁川直轄市 北區 富平 4 洞	○	○			○	○	○	

I : 土地所有의 再編成

II : 農家의 流出入과 地域住民의 再編成

III :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的 導入

IV : 營農機械化

V : 副·兼業農化 (農外就業 및 農外所得增大)

VI : 世代交替

VII : 農事의 마감 (脫農業化)

變化過程, 또는 變化段階를 중심으로 事例地域들의 農業과 農家의 變化를 정리해 보면 <表 3-12>에서와 같으며, 이러한 變化過程들이 해당 지역의 農業構造變化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나. 變化過程

首都圈 주변지역에서의 土地所有의 再編成은 地價上昇과 활발한 土地去來를 동반했고, 農地에 있어서의 土地所有 再編成이 農地를 賣却하려는 農家側으로부터가 아니라 土地에 대한 長期的 또는 短期的 開發需要를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土地를 取得하려는 側에 의해서 主導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곧 非農家들의 資本에 의한 農業資產 또는 農業生産資源의 잠식을 뜻함으로써 農業部門의 相對的 위축, 즉 農家들의 副·

兼業農化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土地所有의 再編成은 農地를 買入한 非農家들을 不在地主化함으로써, 代理耕作, 賃借農 또는 주말농장과 같은 出入耕作을 誘發시키는 要件이 造成되도록 하는 要因이 되었다. 또한 農地를 賣却한 거의 대부분의 農家들이 地價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農業地帶에 農土를 다시 購入함으로써 그 지역의 地價上昇을 자극했으며, 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不在地主化 함으로써 不在地主化的 全國的인 擴散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要因이 되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流浪農家(花卉農家)의 出現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② 農家の 流入과 地域住民의 再編成

이는 土地所有의 再編成과 해당지역이 추구하고 있는 開發方向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해당지역의 不在地主 農地化는 이를 賃借하거나 代理耕作하기 위한 家口들의 流入要因이 되기도 했고, 해당지역의 都市化 努力은 非農家들의 流入을 촉진하기도 했다. 물론 高齡農家가 많고, 이들이 子女世代의 經濟圈에 흡수됨으로써 脫農家化 하는 地域에서의 脫農業化는 地域住民의 再編成을 더욱 加速化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반면, 農家の 流入은 時代別로 그 類形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바, 1970年代 중반까지는 農業立志를 바탕으로 한 農家流入으로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的 導入을 촉진시켰으나, 1980年을 전후로 한 農家流入은 일부 都心開發로 밀려난 農家들의 流浪農家化와 일부 '70年代에 離農, 서울로 移住한 農村出身 零細家口들 중에서 都市生活에 適應치 못한 가구들의 代理耕作이나 賃借農을 바탕으로 한 都市近郊 地域으로의 逆流라는 점에서 그 類形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③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的 導入

首都圈의 事例地域에서는 두가지 導入經路만이 파악될 수 있었다. 하

나는 原住農家 스스로의 自發的, 自求의 努力에 의한 導入이고, 다른 하나는 農業立志를 가진 流入農家에 의한 普及이다. 그러나 指導機關이나 政府에 의한 普及은 전무했다.

한편 事例地域에서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으로 간주되는 것은 花卉(관엽식물), 苧蓆, 施設菜蔬의 3 가지였으나, 交通網의 發達로 交通距離가 크게 단축되었고, 大規模 生産의 有利性을 갖춘 地域들에 비해서 首都圈 近郊地域들이 劣勢에 놓여 있어서 그 導入과 擴散이 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現象維持 내지는 쇠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の 導入은 그 作目만을 專門으로 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主力作目(대부분 畚作)에 補完的으로 導入되는 것이 일반적인 傾向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都市近郊 또는 首都圈地域에서의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の 導入이 항상 專門的 集約農化를 유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の 導入이 都市近郊地域에서 일반적으로 거치는 한 過程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地價의 上昇, 土地所有의 再編成 등의 과정이 큰 폭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進行된 地域에 있어서는 이러한 過程이 생략되어 버렸음을 보여주었다.

④ 營農機械化

事例地域에서는 2個 地域(南楊州郡 和道面 車山 2里, 高陽郡 元堂邑 食寺 2里)에서 營農機械化가 進行되었을 뿐, 나머지 5개 지역에서는 거의 進行되지 않았다.

營農機械化가 進行된 지역은, ① 機械化가 現實的으로 가능한 畚作의 비중이 높고, ② 機械化 投資를 뒷받침할 만한 農家の 財政的 여유, 바꾸어 말하자면 農業所得이 됐던지 農外所得이 됐던지에 관계없이 農家所得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고, ③ 土地所有의 再編成이 거의 進行되지 않고 있는 地域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勞動力의 不足이나 勞力費의 節減, 農業勞動의 便宜化 등과 같은 營農機械化의 有利性을 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두 지역에서 차이가 없으나, 營農機械化 이후에 農家가 추구하는

方向은 두갈래로 구분된다. 즉 南楊州郡 和道面 車山 2리는 營農機械化를 통해서 專業的 集約農化를 도모한 반면에, 高陽郡 元堂邑 食事 2리의 경우는 營農機械化를 통해서 農外就業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副·兼業農化의 方向을 추구한 것이다.

또한 地價上昇이나 土地所有의 再編成이 빠르고 큰 폭으로 진행된 지역에서는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的 導入이 생략되었듯이 營農機械化도 생략되었다는 것은 長期的으로 農家로 存續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⑤ 副·兼業農化

事例地域에서의 農外所得源은 人口의 流入에 따른 住居需要의 增大로 인한 貰房이나 轉貰收入과 同居子女들의 農外就業에 의한 給料收入이 兩大支柱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貰房이나 轉貰收入은 能動的이라기 보다는 受動的 性格이 강한 消極的인 農外所得으로서, 주로 家長인 經營主에 의해서 決定·管理되는 반면, 農外就業에 의한 給料收入은 주로 同居중인 子女들의 能動的, 積極的 努力에 의해서 左右되는 農外所得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이 단순한 都市膨脹에 의한 住居地域으로서의 性格이 강할 경우에는 貰房 및 轉貰收入의 比重이 크고, 예를 들면 인근 工業團地나 大都市通勤圈에 속하는 背後地域으로서의 性格이 강한 경우에는 이 두가지 형태의 農外所得源을 모두 갖게 됨으로써 副·兼業農化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副·兼業農化는 子女世代的 成長과 함께 진행되는 世代交替로 이어짐으로써, 子女世代的 經濟圈에 흡수되어 脫農業化가 진행되기 때문에 現在의 經營主 世代가 高齡일수록 그의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⑥ 世代交替

事例地域에서의 世代交替는 곧 脫農業化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子女들의 經濟圈에 吸收된 다음에도, 先代로 부터의 農土를 지키고 가

꾸어야 한다는 생각과 老年까지도 일손을 놓아버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비록 消極的이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出入耕作, 또는 不在地主로서 農事に 干여하기는 하지만 이는 脫農業化의 過程이 進行중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現在의 나이 든 經營主들은 先代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農土가 실은 自身들의 것이 아니고 최소한 自身들의 代까지는 維持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自身들이 경험한 農業者으로서의 社會的 대우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農事를 自身들의 代에서 마감해야 하며, 더욱이 農業의 장래가 밝지 못하여 子女들의 脫農業化가 불가피하다는 現實認識의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많은 經營主들은 이러한 갈등을 子女들의 判斷에 맡기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農業的 成長을 위한 中長期的인 投資는 물론 短期的인 投資도 거의 없으며 營農後繼者의 斷切에 直面해 있다.

⑦ 農事의 마감

事例地域에서 農事が 완전히 마감된 地域은 仁川直轄市 北區 富平 4洞과 安養市 坪村洞 뿐으로, 모든 農土가 他 用途로 轉用된 地域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首都圈 事例地域에서의 經營主들이 대부분 50代 以上の 老齡層이고, 이들의 子女世代들이 거의 非農業分野에 進出해 있어서, 실인 즉 營農後繼者의 斷切에 直面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여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首都圈地域에서 脫農業化가 상당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第 4 章

首都圈 주변지역의 農業構造 變化上的 當面問題點과 그 對策

1. 問題認識의 基本的 틀

首都圈 주변지역에서의 農業과 農家の 變化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基本的인 要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全般的인 國土開發이나 都心과 都市地域의 膨脹, 都市機能의 向上 및 擴充 등과 같은, 소위 都市化에 대한 需要와, 이에 따른 農地의 轉用, 地價의 上昇, 事實상의 自由競爭에 의한 土地所有의 再編成 등과 같은 農業·農家 外的인 「時代的 흐름」과,

둘째, 生産技術의 向上 및 技術進步, 貿易自由化 및 輸入開放에 따른 農產物 供給量의 증가로 인한 低農產物價格時代의 到來나 이에 따른 農家の 競爭對象의 擴大, 그리고 이에 의한 農業所得 增大可能性의 惡化, 規模 擴大 등을 통한 農家 스스로의 成長可能性 惡化 등과 같은 農業·農家 內的인 要因이 그것이다.

그러나 後者인 農業·農家의 內的인 要因은 首都圈 주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全國的으로, 그리고 農業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에 대한 言及을 피하고자 한다. 물론 前者의 農業·農家 外的인 要因에 있어서도 비단 首都圈 주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程度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가지 基本的인 要因은 農家들 內部에서는 물론 國民 各계층간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같은 「時代的 흐름」 自體를 問題點으로 認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前者에 있어서는, 國土의 開發과 都市化에 대한 需要가 어쩔 수 없 없는 不可抗力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對應이 해당 지역의 利害關係나 要求보다는 주변지역이나 國家的인 國土開發에 있어서의 要求나 需要에 偏重됨으로써 충분한 調和를 이루는데에 소홀히 해온 점은 改善되어야 할 問題點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어떤 지역의 開發이 해당지역의 特性이나 成長與件, 成長潛力, 地域住民들의 多樣한 要求 등을, 가깝게는 인접 또는 인근지역의 그것들과, 그리고 넓게는 國家的 必要와도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工場地域, 綠地地域, 農業地域, 住居地域, 商業地域, 行政地域, 休養地域 등이 해당지역 內에서, 그리고 인접·인근지역과 全國的인 次元에서 綜合的인 調和를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調和와 合議를 위한 輿論의 形成過程, 討論討議過程, 合議過程 등과 같은 制度的 改善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실시될 예정인 地方自治制는 각각의 地方政府가 主管하는 地域開發事業들이 상호경쟁적인 性向을 갖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準備段階에 있는 農業振興圈域 制度나 進行中에 있는 第2次 國土開發 10年計劃 등은 위에서 지적된 制度的 改善을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調整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後者인 農業·農家の 內部的 要因에 있어서는 農業·農家の 他産業分野와의 競爭力과 他國家들의 農業·農家와의 競爭力 向上을 그 基本的인 目標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手段은 매우 多樣할 뿐 아니라 이들 手段이 時代的 與件에 따라서 각각 그 效果

를 달리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論議를 여기서 시도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는 土地所有의 再編成과 農家の 移動과 關聯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對應方向을 제시하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2. 土地所有의 再編成과 農家の 移動

오늘날 우리나라의 土地去來는 法規나 制度에 앞서서 現實적으로 無制限的인 自由競爭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資金력을 가진 非農民 小數人들이 土地를 買占하고, 그들 間의 土地去來는 큰 幅의 地價上昇을 誘發시킴으로써, 所得增大가 絶실하고, 이를 위한 營農規模의 擴大가 불가피한 階層에 속하는 農家들의 農地買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實情이다. 이는 특히 生産資源으로 活用되고 있던 農地가 단순한 去來商品化 되고 있는 現狀이라는 점에서 그의 改善이 매우 時急한 問題點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不健全한 土地所有의 再編成은 土地의 公共성과 公益의 利用을 內容으로 한 土地公概念의 導入을 통해서 抑制코자 하고 있으나, 自由市場의 競爭原理를 바탕으로 한 資本主義 經濟體制 아래서는 極히 당연하고 不可抗力的인 것이라는 反對意見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關聯法規와 제도의 內容에 대한 시비가 잦아지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不健全한 土地所有의 再編成은 結果적으로 農家들이 農土로부터 分離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한 農家の 移動이 不健全한 方向으로 진행되도록 강요하는 根本要因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하겠다.

특히, 事例地域에서의 不健全한 土地所有의 再編成이 農家の 移動을 不健全한 方向으로 誘導했다는 볼 수 있는 類型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하나는 農地를 賣却한 農家들이 先代로부터 물려받은 農土를 자신들의 世代까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땅값이 저렴한 平野地帶의 田畝를 대신 買入·確保하지만, 自身들은 나이가 많아서 머지않아 子女들의 經濟 및 生活圈에 흡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農事를 이어받을 子女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農事를 짓지 않고 現地農家들에게 賃貸함으로써 스스로는 不在地主가 되고 마는 경우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觀點에서의 不作用을 유발하게 된다.

첫째, 都市近郊地域의 農家들이 農土를 대신 買入한 平野地帶의 地價를 자극하고, 비록 광범위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土地去來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結果적으로 地價上昇을 誘發하여 規模擴大를 必要로 하는 現地農家들의 農地買入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農業所得의 增大를 第1의 目標로 해야 하는 平野地帶의 農家들에게 賃貸料라는 추가적인 費用을 부담시킴으로써 耕作農家들의 農業所得 向上을 阻害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都市近郊地域의 農家들이 平野地域의 農地를 買入하고 스스로 不在地主化 한다는 것은, 都市近郊와 같은 어느 한지역의 土地去來(土地所有의 再編成)를 全國적으로 별다른 制限없이 無差別적으로 擴散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가지 不作用은 制度的인 裝置와 그 施行이 農業地域에서의 農地取得이 不在地主화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主眼點을 둠으로써 改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都市近郊地域의 農家들로 부터 農地를 買入한 非農民들은 地價의 上昇에 의한 賣買差益이나 老後對策의 일환으로 買入한 農地를, 週末農場이나 休養處 管理와 같은 出入營農, 所有의 의미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代理耕作이나 賃貸, 또는 아예 農地를 放置함으로써 적게는 營農의 不實化를, 國家經濟적으로는 資源利用의 非效率化를, 그리고 長期的으로는 農業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現狀은 해당지역이 都市나 都心으로 開發 될때까지 限時的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過程의 하나로 여겨질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現狀은 場所와 地域을 옮겨다닐 뿐 國土開發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실제로 지금까지의 경험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 등 全國적으로 계속되어 왔었다는 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現狀은 해당지역에 대한 開發計劃이 해당지역에 居住하고 있는 住民들에게 늦게 알려졌을수록 심하게 나타난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開發計劃의 初期段階인 타당성 檢討나 構想 등의 過程이 일부 階層 및 그 周邊에게만 事前에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不作用的 解消는 密室計劃이나 保安의 強化를 통해서 보다는 해당지역의 現地住民과 地方自治機構의 要求와 意思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의 要求를 收斂하고, 절충하고, 理解를 구하는 등의 討論 및 協議過程을 制度的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뒷받침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와 같은 地域開發에 대한 소문이나 情報管理에 대한 一方의인 保安維持는 이미 부분적으로 限界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머지않아 그 限界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土地轉用 및 利用을 둘러싼 地域開發事業은 앞으로 施行될 地方自治制와 地域의 發展은 地域住民의 努力과 必要, 그리고 便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時代的 要求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農家の 移動이 不健全한 方向으로 유도된 또다른 하나는 所有土地의 일부만을 賣却한 都市近郊地域의 農家들에 있어서의 營農 小規模化 및 副·兼業農化와 처음부터 零細한 農地를 바탕으로 農事를 지어오던 農家들의 流浪農家化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營農規模의 縮小나 副·兼業農化는 都市開發과 關聯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世代交替를 동반한 점진적인 脫農業化라는 農家の 內部的 狀況이 보다 큰 要因으로 作用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零細한 土地를 受用당하거나 賣却했으나 農事를 떠나지 못하는 農家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다른 기술이 축적된 花卉農家들은 都市近郊地域의 不在地主化한 農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비록 暫定的으로

나마 農事를 계속하고자 하지만, 그 地域이 本格的으로 開發되기 시작하면 또다시 밀려나야 하는 流浪生活이 연속됨으로써 補賞 - 補賞 - 補賞의 惡循環을 거듭하기도 했다(예: 서초동 → 일원동 및 세곡동 → 분당동... 등).

이는 補賞의 惡循環에 대한 우려와 非農家라고 할지라도 農地를 買入하면 그 農地를 賃借해서라도 農事를 지을 이러한 農家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賃貸가 가능하다는 與件이 造成됨으로써 不健全한 土地去來가 形成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對應方案

따라서 이러한 不健全한 土地所有와 農家の 移動 및 再編成을 방지하고 그 不作用을 최소화 하기 위한 努力은, 비록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가 自由競争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國民 각자의 共存共榮에 대한 自覺과 道德性에 대해서는 물론, 自由競争에 대한 選擇의인 制限에 依存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農業的 側面에서는, 農地所有에 대한 강한 愛着과 職業 또는 產業으로써의 農業에 대한 현실적인 회의적 視覺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보다는 바뀌진 여건하에서나마 農業生産의 效率性を 提高시킬 수 있는 方向에서 積極的인 政策開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체로 小規模 農地를 각각의 農家들이 耕作하고 있는 都市近郊地域에 있어서는 所有農地를 出資金으로 한 株式會社 形態의 共同生産組織이나, 또는 專門農業人들로 구성된 委託營農會社의 育成 및 支援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形態의 努力은 1982年에 이미 경남 의창군 구산면의 수정마을에서 試圖되어 상당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所有農地를 出資金으로 하지 않고 1만원짜리 株式 1,000株를 140여 農家들에게 發行함으로써 1,000만원을 資本金으로 確保하고 그동안 마련한 部落自立基金 3,250만원과 政府支援金 1,750만원을 합한

6,000 만원으로 각 農家들의 개별적인 農事와는 별도로 2,400 坪의 대단위 비닐하우스 국화(切花生産)栽培를 시작하여 상당한 效果를 거둠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이 낙관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都市近郊地域에서의 花卉農家에 있어서는 그 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상당수의 農家들은 이미 流浪農家化 되어 있어서 花卉栽培의 科學化나 成長을 위한 投資意慾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實情인 바, 이는 政府의 都市工場移轉을 위한 工業團地의 造成과 동일한 觀點과 次元에서 改善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花卉産業은 農産物 輸入開放에 대한 積極的인 對策인 輸出促進이 매우 有望한 것으로 判斷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公害誘發 보다는 公害防止의 效果가 있고, 良好한 土質이나 地力보다는 空間만을 必要로 하며, 포장 및 장거리 輸送이 다른 農産物에 비해서 쉽지 않다는 特性을 지닌, 별로 많지 않은 高所得 都市近郊型 作目に 속한다는 점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都市工場의 移轉을 위한 工業團地의 造成과 유사한 花卉團地의 造成은 流浪農家에 대한 根本的인 解決과 花卉의 輸出戰略作目化, 그리고 都市近郊地域에서의 綠地空間 確保라는 次元에서 보다 積極的인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都市近郊地域의 零細花卉農家들의 花卉輸出 主役化를 위한 花卉團地는 농가들의 현재의 零細性을 고려하여, 農地는 長期賃貸나 地價의 長期分割賞環을, 비닐하우스, 溫室 등의 施設投資는 그의 耐用年數를 고려한 中長期 資金支援을, 共同施設이라고 볼 수 있는 冷暖房施設이나 農業用水 供給施設은 中央集中式으로, 그리고 花卉商品의 集荷, 道別, 包裝, 輸送, 販賣, 輸出을 위한 檢査나 情報센터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民資의 誘致 등을 통해서 그 效果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현실적으로 농후사료에 지나치게 依存함으로써 그의 經濟性이 상대적으로 不利하고, 公害誘發 可能性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都市近郊地域에서의 家畜飼育은 그의 前後方産業인 飼料工場, 畜産機器 供給業體, 乳加工 및 集乳場, 屠畜場 등과 함께 都市地域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의 認許可業務나 節次

가 더욱 有機的이고 合理的인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상에서 지적된 問題點들이, 단순히 中央集權制 아래서 首都圈 地域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現狀이나, 또는 서울과 接하고 있는 모든 接境地域이 앞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머지 않아 모두 市級 都市로 昇格 내지는 都市化 될 것이냐 (接境 17個 行政區域중 9個 地域은 市(議政府市, 九里市, 河南市, 城南市, 果川市, 安養市, 光明市, 富川市, 仁川直轄市), 8個 地域은 邑·面(주로 西北方面: 高陽郡 知道邑, 花田邑, 元堂邑, 神道邑, 金浦郡 高村面, 楊州郡 長興面, 南楊州郡 別內面, 廣州郡 西部面으로 머물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의 直轄市나 또는 全州, 原州, 春川 등과 같은 都市들에 있어서도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論難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輿件이나 環境 및 雰圍氣, 그리고 制度的 裝置와 이의 施行이 크게 改善되지 않는 한, 事例地域에서와 같거나 유사한 不作用이 답습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第 5 章

要約 및 結論

首都圈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農業과 農家の 변화는 지역에 따라서는 매우 빠른 速度로 진행된 바, 한편으로는 都心圈의 膨脹과 都市化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農業의 産業, 또는 職業으로서의 成長과 發展可能性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인천시 북구 防築 1洞과 富平 4洞, 그리고 南楊州郡 和道面 車山 2리가 1960年代 중반까지, 安養市 坪村洞과 城南市 福井洞이 1970년 전후까지, 그리고 高陽郡 元堂邑 元興 1리와 食寺 2리가 1983년 전후까지 傳統的인 논농사 및 밭농사를 위주로 한 典型的인 농촌마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현재 完全히 都市化되어 脫農業化한 인천시 북구 富平 4洞은 第1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이 끝날 무렵인 1968년을 전후한 富平工業團地의 造成을 계기로 차츰 변하기 시작하여, 京仁電鐵이 開通된 1974년부터 原住農家들의 副·兼業農化가 本格的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人口流入으로 인한 賃房, 傳賃 등의 農外所得 增加), 子女들의 非農業分野 進出과 現經營主의 老齡化 (同居子女들의 農外就業에 의한 給料收入의 增加), 그리고 仁川市의 膨脹과 電鐵 富平驛 주변지역의 都心地化에 따른 富平 4洞의 住居地域으로서의 役割增大로 1985년과 1987년의 두차례에 걸친 宅地開發을 위한 土地受用이 행해졌으며, 이로써

富平 4 洞은 지난 20 年 동안에 典型的인 畝作마을에서 富平工團의 背後 都市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또한 1989 年 準直轄 性格의 新都市로 開發키로 한 安養市 坪村洞은 금년인 1989 年을 끝으로 農事를 마감하게 되는 바, 坪村洞의 宅地開發 事業에 대한 기대가 자리잡기 시작한 1970 年代 後盤부터 土地去來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宅地開發事業에 대한 타당성 檢討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1985/1986 년에 절정을 이루게 됨으로써, 農事에 대한 原住農家들의 比重은 그 당시에 이미 1/3 수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不在地主들의 出入耕作, 不在地主化한 農土에 대한 農村出身의 都市零細 家口들에 의한 代理耕作, 혹은 賃借耕作 등의 다양한 過渡期的 현상이 混在했었으며, 1989 年의 수확을 끝으로 新都市 建設事業이 着手될 豫定이다. 이로써 坪村洞은 불과 10 여년만에 典型的인 畝作地域으로부터 準直轄 性格의 新都市로 바뀌게 된 셈이다.

城南市 福井洞은 1972 年의 市昇格을 계기로 首都圈 衛星都市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土地去來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989 년에는 福井洞 전체 토지의 80% 가량을 管外人이 所有하고 있을 정도로 土地所有가 再編成되었으며, 城南市 스스로는 '88 올림픽 경기의 일부를 치루어야 했고, '88 올림픽 관련 施設들과 인접해 있어서 이에 대한 都市機能의 補完 및 擴充을 위해서 1986/'87 년에는 대대적인 開發事業을 推進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70 년까지만 해도 典型的인 畝作地域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福井洞은 일부 絕對農地로 지정되어 있는 集團化되어 있는 논면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地域이 住居地域으로 바뀌었고, 일부 3 번 國道 주변의 田畓은 100 餘棟에 이르는 비닐하우스들이 집중됨으로써 花卉團地化 되어 있으며, 農家に 있어서도 전체 170 여 농가중 擔作 중심의 原住農家が 40 戶, 流入된 花卉農家が 130 戶로, 그 構成과 마을 모습이 크게 달라져 있다.

한편 高陽郡 元堂邑 元興 1 리는 1984 年까지 外形의으로는 물론 內容의으로도 별다른 변화나 特徵이 없는 典型的인 農村마을이었으나, 1985 年 地下鐵 3 호선이 開通됨으로써, 구과발 지역에 散在해 있던 花卉農家

들 중 상당수가 移住해 옴으로써, 과거의 畚作中心의 마을에서 畚作+花卉의 地域複合 性格의 농촌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一山 新都市 建設을 계기로 地下鐵 連結路線과 北部循環道路가 元堂을 통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城南市 福井洞과 비슷한 過程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元堂邑의 食寺 2리는 지금까지도 外形的으로는 典型的인 畚作+田作의 농촌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인접한 食寺 5리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나환자 재활농장인 「고운농장」이 1982년부터 中小企業工團化 하기 시작함으로써 農家들이 兼業農化 하기 시작했으며, 1985년부터 이 工團이 本格的으로 入住하기 시작하여 1989년 현재 400여 業體가 3,000여명의 現地人力을 고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체 83戶의 農家中 72戶가 農外就業을 통한 副·兼業農家로 바뀌었다.

仁川市 北區 防築 1洞은 마을 대부분이 開發制限 및 軍事施設保護地域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1970년대 중반에 施設菜蔬(토마토)와 酪農 등의 家畜이 導入·定着했을 뿐 별다른 변화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住居를 目的으로 한 都市零細家口의 꾸준한 流入으로 住居 중심의 마을 기능에 대한 需要가 크게 높아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貫房 및 專貫收入과 子女들의 農外就業에 의한 給料收入 등이 증가하는 반면 현재의 經營主가 高齡化함에 따라서 農事는 점차 副業的 의미를 더해 가고 있다.

南楊州郡 和道面 車山 2리는 1965년에 酪農立志의 뜻을 가진 4개 農家가 적소 20頭와 함께 이 마을로 移住해 옴으로써 酪農이 꾸준히 확산되어, 既存의 畚作+田作 이외에도 일부는 酪農專門農家로, 일부는 既存의 耕種에 酪農을 추가한 複合經營農家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變化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要因으로부터 기인된 바, 하나는 國土開發 및 都市化와 관련된 農業·農家 外的인 要因(外部的 要因)이고, 다른 하나는 農家로서 겪어온 지금까지의 經驗과 農業의 장래에 대한 展望 등과 관련된 農業·農家 內的인 要因(內部的 要因)이다.

우선 外部的 要因은 國土의 發展과 開發(都市化, 工業地域化 등) ⇨

農地의 轉用과 土地所有의 再編成 ⇨ 脫農, 農家의 流出, 새로운 階層의 流入 등의 地域住民의 再編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誘發要因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內部的 要因은 農業의 장래에 대한 회의적인 展望 및 農家로서의 지금까지의 경험(輸入自由化, 低農產物價格時代의 到來, 社會的 소외감, 상대적 열등의식 등) ⇨ 子女世代의 非農業分野 進出圖謀 ⇨ 營農後繼者의 斷切 ⇨ 過度的인 副·兼業農化 ⇨ 世代交替 및 農事의 마감(脫農家化, 不在地主化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誘發要因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50代 以上の 現經營主들은 先代로부터 물려받은 農土를 최소한 自身の 代까지만이라도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과,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 農業의 經濟的 收益性의 보장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힘들고 어려운 農事를 子女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의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都市近郊地域에서의 農業·農家의 변화는 전반적인 國土開發, 都市機能의 擴充·補完과 같은 都市化에 대한 需要와 이에 따른 地價上昇 등의 外部的 要因은 時代的 要求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變化의 흐름」 자체를 問題點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發展은 주변지역 및 國家的 必要 뿐 아니라 해당지역 스스로의 필요와 便宜가 서로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소홀히 해온 점은 改善되어야 할 問題點으로 指摘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土地去來가 制度나 法規에 앞서서 현실적으로 無制限的인 自由競爭에 맡겨짐으로써, 土地의 生産資源化가 커다란 障礙를 받고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改善이 시급한 問題點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土地所有에 대한 강한 國民的 愛着과 職業으로서, 그리고 產業으로서의 農業에 대한 현실적인 회의적 視覺을 正面으로 否認하지는 않되, 農業生産의 效率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方向에서 政策開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所有農地를 出資金으로 한 株式會社 形態의 共同生産組織이

나 委託營農會社의 育成·支援과 같은 方案이 檢討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委託營農會社가 不在地主化를 부추기는 不作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미 상당수준 集團化되어 있는 基盤이 취약하고 零細한 首都圈 地域의 花卉農家들은 都心工場의 移轉을 위한 工業園地 造成과 동일한 觀點과 차원에서 改善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花卉의 輸出戰略作目化를 위해서는 中央集中式 冷暖房施設, 輸出商品化 作業 및 檢査 등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게 된다면 더욱 效果的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首都圈 주변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現狀이나 아니면 이러한 現狀들이 점차 全國적으로 擴散될 것이냐 등에 대한 論難의 여지는 있겠으나, 지금까지와 同一한 與件과 環境, 그리고 制度的 裝置들이 크게 改善되지 못하면, 사례 지역에서 경험했던 동일한 또는 유사한 不作用들을 또다시 경험해야 하는 結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姜奉淳 外, 「主要 生産調整 指向作目的 地域特化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具在書, 「韓國農業의 地域性에 관한 研究」, 高大 國際農業資源研究所, 1967.
- 金聖昊 外, 「自然條件에 의한 韓國의 農業地帶」, 研究資料, 農業經濟研究所, 1984. 5.
- 金沅根, 「韓國의 農業地帶에 관한 研究」, 農業政策研究 第9卷 第1號, 1982.
- 農村振興廳, 「施設園藝의 類型別 經營成果와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 農業經營 研究報告 第25號, 1986. 1.
- 農協中央會調查部, 「서울近郊 酪農經營에 관한 調查報告」, 調查資料 68-6號, 1968.
- _____, 「우리나라 農地의 現狀과 立地에 관한 調查研究」, 農協調查月報, 1971. 9.
- 徐贊基, 「韓國農業의 空間 Model에 관한 研究」, 地理學 第9號, 韓國地理學會, 1974. 5.
- 柳佑益, 「農村地域의 空間的 特性과 開發戰略」, 農村地域綜合開發研究의 課題, 第1次 워크샵 보고서,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
- 李政紀, 「韓國農村地域의 類型區分에 관한 研究」, 서울대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8. 2.
- 李鶴源, 「서울을 중심으로 한 酪農立地에 관한 研究」, 地理學 第10號 韓國地理學會, 1974. 12.

- 全昌坤, 「大都市 市場圈 農業地域の 生産地帯形成과 要因分析 -서울市 市場圈을 중심으로-」, 高大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5. 6.
- 鄭義弘, 「花卉主産地에 관한 研究 -馬山 國産主産地の 事例를 중심으로-」,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5. 7.
- 朱奉圭, 「農業地域 區分設定에 관한 研究」, 農業政策研究 第8卷 第1號, 1981. 12.
- 崔洋夫 外, 「産業社會의 農村發展戰略」, 研究叢書 1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7.
- 許信行 外, 「首都圈 農業生産의 環狀地帯」, 農村經濟 第7卷 第1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3.
- 吉田寬一, 「高度經濟成長と地域の農業構造」, 日本 農山漁村文化協會, 1980. 6.
- 多門院和夫, 「地域農業システムの課題と方法」, 農林業問題研究 第18卷 第4號, 日本 關西農業經濟學會, 1982. 12.
- 神戸正編, 「都市化に對應する農業經營」, 日本 家の光協會, 1969.
- 山本正三 外, 「北海島にあける農村空間區分」, 人文地理學研究, 筑波大學 地球科學系, 1980.
- 塚田章二郎, 「首都近郊における野菜生産の特徴と技術問題」, 農業經營研究 第20卷 第20號, 日本 農業經營研究會, 1982. 10.
- Ewald U. 「The von Thünen Principle and Agricultural Zonation in Clonial Mexico」, Journal Historic Geography 3, 1976.
- E.W. Schenk, 「Betriebsanalyse in Produktionsgartenbau」, Paul Parey, 1978.
- W. Norton, 「The Relevance of von Thünen Theory to Historical and Evolutionary Analysis of Agricultural Land Us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s, 30, 1979.

빈 면

研究報告 192

首都圈 주변지역의 農業構造變化에 관한 調查研究

1989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刷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